

韓國服飾

第42號

目次



韓國服飾 제42호 | 2019.12

■ 논문

전북 순창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 복식 고찰 5
이은주

조선시대 왕의 염습의대(斂襲衣櫛)에 관한 연구 27
정말숙

개인 소장 근·현대 어린이 복식품에 관한 소고(小考) 49
지수현

손소(孫昭) 적개공신화상(敵愾功臣畫像)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73
윤진영

■ 한국복식 간행규정

■ 연구윤리규정

전북 순창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 복식 고찰

이은주*

■ 논문요약

이 연구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한 익성공 황희(黃喜, 1363~1452)의 조모 진주강씨(晉州姜氏, 14세기 전기 생존) 묘역에 조성된 감투형 석인상을 통해 석인상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밝히고 여말선초 남자복식을 추정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세기 전기에 생존한 인물로 추정되는 진주강씨 묘역에 조성된 1쌍의 석인상은 손자 황희가 세종 24년(1442)에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진주강씨 묘역에 조성된 석인상은 높이 111cm, 117cm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현재 마모되고 부식된 상태여서 복식의 세부적인 형태 파악은 어려웠으나 그 중 확실하게 파악되는 것은 관모 '감투'였다. 황희 일가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의 감투 형태를 비교해본 결과, 진주강씨 묘 석인상의 감투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말선초에 감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복식을 석인상 자료와 문헌·회화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교임형 철릭이나 대금형 철릭, 방령포, 답호, 직령 등 5종의 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검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는 진주강씨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 복식으로는 교임형 철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이 양손으로 잡고 있는 긴 물체를 검 등의 무기로 판단함에 따라 묘주를 보호하는 무인석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은 조선전기 석인상 연구의 사료적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 초 지방에 조성된 드문 석인상 사례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큼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진주강씨, 순창, 황희, 무인석, 감투, 여말선초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문화산업연구소 소장, E-mail : lej580@naver.com

| 투고일 | 2019.11.22 | 심사개시일 | 2019.11.26 | 심사완료일 | 2019.12.09 | 게재확정일 | 2019.12.23

I. 서론

이 연구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산35에 위치한 황희(黃喜, 1363~1452)의 조모 정부인 진주강씨(晉州姜氏, 14세기 전기 생존) 묘역에 조성된 석인상의 복식을 문헌과 회화자료, 관련 석인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진주강씨 묘 석인상의 사료적 가치를 밝힘과 동시에 연구가 미진한 여말선초(麗末鮮初) 남자 복식의 일면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조선 초 명재상(名宰相)으로 이름을 날린 황희는 장수황씨(長水黃氏)의 4세조이다. 황희의 부친은 판강릉부사를 지낸 황군서(黃君瑞, 미상~1402)¹이며 모친은 감문위 호군을 지낸 김우(金祐)의 딸 연안김씨이다.² ‘한국의 풍수지리’³에 따르면 장수황씨는 고려 때까지만 해도 알려진 성씨가 아니었다. 황희의 조부인 황균비(黃均庇, 1363년 이전 사망) 묘의 발복(發福)에 의해 장수황씨 집안의 영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황균비가 묻힌 전북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산촌마을 뒷산 중턱의 땅은 황희의 부친 황군서가 어려움에 처한 나옹선사를 구해주고 그 보답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 기러기가 맞은 편에서 부는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여 날개짓하며 한가롭게 날아가는 형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풍수적으로 명당 자리라고 한다. 조부 황균비의 묘를 조성한 후 태어난 황희는 조선 태종 때부터 세종대에 걸쳐 6판서를 두루 거치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며 그의 맏아들 황치신(黃致身)은 아버지의 후광인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가 호조판서와 한성부윤을 거쳐 종1품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셋째 아들인 황수신(黃守身, 1407~1467) 역시 음보로 벼슬에 나가 세조 때 영의정에 올라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지금까지 사대부가 묘역의 석인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경기도박물관의 경기도 지역 석인상 조사 보고서⁴와 원주 지역 문인석에 관한 연구⁵, 조복형 문인석에 관한 연구⁶가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묘역의 무인석에 관한 연구⁷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황희와 황희 모친, 황희의 셋째 아들 황수신 묘역에 세워진 석인상, 그리고 전북 순창에 세워진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 모습을 비교하여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복

1 황희[2019. 9. 5 검색], 두산백과 <http://reurl.kr/3904B452NC>, 이 원고는 2019년 9월 전북 순창군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황희[2019. 8. 12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reurl.kr/462591F2EO>.

3 황희[2019. 9. 11 검색], 한국의 풍수지리 <http://reurl.kr/3904B446XS>.

4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5 임영근, 2005, 原州地域 墓의 文人石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10, pp.19~51.

6 崔允貞, 2005, 조선시대 金冠朝服型 文人石 연구, 한신大學校 碩士學位論文; 한주영, 2006, 17~18세기 문인석에 나타난 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7 이은주·송미경, 2012,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무인석상 복식에 대한 고찰, 韓服文化 15(2), pp.63~76.

식사료적 가치를 밝히고 여말선초 감투와 함께 착용하였던 남자복식을 밝히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황희 조모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특징

1. 황희 일가 묘역의 석인상

이 글에서 말하는 황희 일가 묘는 황희의 조모 진주강씨를 비롯하여 황희의 모친, 황희 자신, 황희의 셋째 아들 황수신 묘 4기를 의미한다. 이 묘역에는 감투를 쓰고 있는 석인상(이하 ‘감투형 석인상’)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황희와 아들 황수신 묘에는 감투형 석인상 외에 복두·공복형 문인석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황희와 아들 황수신 묘역의 복두 문인석 복식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감투형 석인상의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4기의 묘에 조성된 감투형 석인상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황희와 황희 모친, 아들 황수신의 묘는 현재 파주에 위치해 있고 조모 진주강씨의 묘는 전북 순창군에 조성되어 있다.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순창에 감투형 석인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방 석물 사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석인상 문화사 이해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황희 일가 네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의 복식을 살펴보면 포의 길이는 모두 길지만 포의 소

표 1. 황희 일가 묘역(4기)의 감투형 석인상 비교

진주강씨 (14세기 전기)	연안김씨 (14세기 후기)	황희 (1364~1452)	황수신 (1407~1467)
황희 조모	황희 모친	본인(문인석 추가)	아들(문인석 추가)
			

매는 황수신의 석인상만 광수(廣袖)이고 3기는 모두 착수(窄袖)로 표현되어 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투의 경우는 조모 진주강씨의 감투가 가장 낮고 황희의 아들 황수신 묘의 석인상 감투가 가장 높았다. 감투의 높이는 시대를 나타내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복식을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진주강씨 묘역 석물 현황

진주강씨의 생몰연대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황희의 생몰 연대(1364~1452)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뿐이다. 조부 황균비가 황희 출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조부 황균서와 함께 조모 진주강씨는 14세기 전기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북 순창의 진주강씨 묘역에는 석인(2기), 묘비(2기), 상석(1기), 산신석(1기) 등 총 6기의 석물이 있다(그림 1). 묘비 2기 중 오래된 묘비는 봉분을 등지고 왼편에 있는 화강암 묘비(그림 2)이다. 작은 원문(圓紋)이 음각된 직육면체 좌대 위에 비신(碑身)과 복연엽(覆蓮葉) 옥개석을 일체형으로 조각하여 세웠다. 전면에 해서체로 쓴 ‘贈貞夫人姜氏之墓’라는



그림 1. 황희의 조모 진주강씨 묘역 석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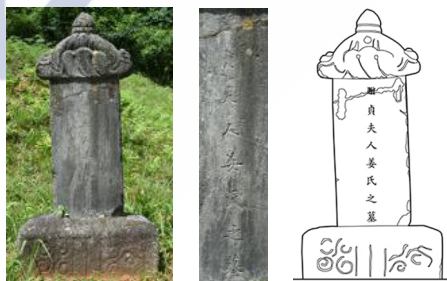


그림 2. 1564년에 건립된 진주강씨 묘비와 전면 음각 ‘贈貞夫人姜氏之墓’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贈’은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으나 손자 황희가 영의정에 올랐기에 추증되어 2품에 해당하는 ‘정부인’에 오른 것으로 짐작된다.

묘역에 세워진 안내판 기록에 따르면 묘비 뒷면에 “正統七年 壬戌二月 日 領議政 黃喜 立 嘉靖 四十三年 九月 日 南原府使 黃允寬”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즉 정통 7년(세종 24, 1442) 2월에 손자 영의정 황희가 세운 묘비를 120여 년이 지난 가정 43년(명종 19, 1564) 9월에 남원부사로 온 현손 황윤관(黃允寬, 1492~미상)이 새로 세운 것이다.⁸ 황희가 1442년에 세운 묘비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3.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형태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이 어느 시기에 세워진 것인지 그 연대를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석인상의 모습이나 마모 정도로 볼 때 1442년 황희가 묘비를 세울 때 함께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진주강씨 묘역 좌측 석인상(앞·옆·뒤, 높이 111cm, 몸통둘레 112cm)



그림 4. 진주강씨 묘역 우측 석인상(앞·옆·뒤, 높이 117cm, 몸통둘레 123cm)

8 순창군, 2019, 앞의 책, p.15.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은 묘 앞 기단 아래에 좌우로 마주보고 있도록 1쌍(그림 3·4)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을 등지고 좌측에 있는 석인상은 높이가 111cm이고 몸통둘레는 112cm이며 우측에 있는 석인상은 높이가 117cm, 몸통둘레가 123cm이다. 우측의 석인상이 좌측 석인상에 비해 약간 크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현재 석인상은 훼손이 심한 상태이므로 복식의 형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얼굴도 음각된 큰 눈망울과 입 등의 윤곽선 정도만 파악되는 상태이다. 신체 비례로 볼 때, 머리 부분이 유난히 크게 표현되어 있으며 목을 움츠리고 어깨를 구부린 경직된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에는 높이가 낮은 감투를 쓰고 긴 포를 입고 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 좌측 석인상의 허리띠 두께가 더 넓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양 손으로 길이가 긴 물체를 잡고 있다.

4.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감투

(1) 감투 명칭과 형태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은 챙 없이 머리에 덮어쓰는 감투(甘套)를 쓰고 있는데 <그림 5>⁹에서 볼 수 있듯이, 감투는 이미 원대에도 착용되었다. 감투는 ‘甘套’¹⁰ 외에 ‘鬚頭’¹¹·‘坎頭’¹²·‘甘吐’¹³·‘甘土’¹⁴ 등 다양한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소모(小帽)¹⁵, 소모자



그림 5. 원대 풍속화 속 감투
(B. Smith 1986: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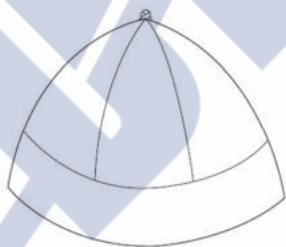


그림 6. 심수륜 묘 감투 도식화
(경기도박물관 2004:230)



그림 7. 17세기 전기 전 박장군 묘 감투 (文化公報部 1986:147)

9 Bradley Smith & Wan-go Weng, 1986, *China : A History in Arts*, Doubleday & Co. : New York, p.204.

10 『성종실록』 25권, 성종 3년 12월 16일 무인, “甘套十”.

11 『甲辰漫錄』, 한국고전번역원, <http://reurl.kr/38C4A6D2GB>.

12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12일 을사, “坎頭”.

13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7일 정묘, “鴉青段子甘吐”.

14 『성종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2일 갑진, “黑羊毛甘土”.

15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小帽子), 육합일통모(六合一統帽)¹⁶라고도 하며 그 외에 전모(氈帽)나 혼탈모(渾脫帽), 그리고 탕건과의 관련성¹⁷이 지적되기도 한다.

명대 말기 문헌인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모자(帽子)’¹⁸ 역시 감투인데 그 형태는 〈그림 6〉¹⁹처럼 삼각형 6조각과 대륜, 즉 무(武) 부분을 붙여 만든 것이다. 견직물이나 면직물 외에 모(毛)²⁰나 편직(編織) 등으로 봉제선 없이 만든 것(그림 7)²¹도 있다.

〈표 2〉는 황희 일가의 묘역에 세워진 석인상의 감투 형태를 비교한 것이다. 감투의 높이나 모정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다. 진주강씨의 증손자 황수신 묘 석인상의 감투는 세조~성종 연간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종 2년(1471) 좌리공신 이승원(李崇元, 1428~1491) 초상화(경북 유형문화재 제69호)²²의 사모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승원 초상화의 사모를 볼 때, 당시 감투의 높이 역시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증조모 진주강씨 묘 석인상의 감투는 높이가 매우 낮다. 석인상의 두부(頭部)가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어 감투가 낮아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진주강씨 생시의 감투 형태를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황희는 공민왕 12년(1363)에 태어나 14세였던 우왕 2년(1376)에 음직으로 안복궁(安福宮) 녹사가 되었으며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조모가 생존했던 시기의 개체변발(開剃辮髮)²³을 포함하여 고려 말기의 복식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을 제작하면서 조모 생시의 시자(侍子)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 황희 일가 묘 석인상 감투 비교

진주강씨 묘 감투 (14세기 전기)	연안김씨 묘 감투 (14세기 후기)	황희 묘 감투 (1364~1452)	황수신 묘 감투 (1407~1467)
			

16 周汎·高春明, 1996, 中国衣冠服飾大辞典, 上海辞书出版社: 上海, p.81.

17 金恩妍, 2006,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경기도, p.101.

18 『三才圖會』 衣服一卷, 帽子.

19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p.230.

20 『성종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2일 갑진, “黑羊毛甘土”.

2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6,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篇(下), p.147.

22 이승원 초상화[검색일 2016. 2. 2],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23 『高麗史』 世家 卷28, 1278년 2월부터 호복과 개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주강씨 묘역을 조성하던 당시의 모습을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개국(開國, 1392)·좌명(佐命, 1401) 공신 이지란(李之蘭, 1331~1402) 초상화²⁴에 표현된 사모나 명나라 심도(沈度, 1357~1434) 초상화²⁵, 명 정통제(正統帝, 재위 1436~1449) 좌상²⁶을 볼 때 당시 관모의 모체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시기의 관모 높이는 대체로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 감투 형태의 시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으나 여말선초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 감투 사용자와 용도

감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원나라(그림 5)는 물론, 명·청²⁷ 시기까지 사용되었던 관모이다. 우리나라의 감투에 대한 첫 기록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말 우왕 13년(1387) 6월에 개정한 관복제도에서 보이는데 신분이 낮은 이들이 관복용 관모로 감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영(領)의 위(尉)와 정(正)은 감투[坎頭]·고정립(高頂笠)에 직령을 입고 전대를 두르도록 한다. …… 반방(飯房)·수방(水房)·등촉상소(燈燭上所)【궁중의 등촉하는 사람을 등촉상소라 고 부른다】는 고정립·직령·전모(氈帽)·전대·감투를 쓰도록 한다.”²⁸

조선시대 감투는 성인 남성²⁹뿐만 아니라 여성³⁰, 어린아이³¹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태종 16년(1416) 기록에는 “향리가 평상시에 감투를 쓴다.”는 내용³²이 보이며 세종대 기록에서는 왕의 습용(襲用) 수관(首冠)으로 감투[簷頭]를 사용³³한다고 하였다. 또 성종은 영안북도 절도사 등 군사들에게 방한복으로 모의(毛衣)와 방의(防衣), 병거지[翻巨知], 이엄(耳掩)과 함께 감투를 보내기도 하였으며³⁴ 12월 추운 겨울에 조선에 온 중국인들에게 이엄과 모감투(毛甘套)를 내리기도 하였다.³⁵ 또 중종대 기록에는 형조판서(정2품)가

24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성남, p.27.

25 南京博物院, 1993, 南京博物院藏肖像畫選集, 文物出版社: 北京, 图7.

26 Craig Clunas & Jessica Harrison-Hall, 2014, *Ming*, Univ. of Washington: Seattle, p.57.

27 Terry Bennett, 1997, Korea: *Caught in Time*, Reading, Garnet Publishing Ltd., UK, p.26.

28 『高麗史』 卷72, 志26 輿服. “辛禍 …… 十三年 六月 …… 各領尉正 坎頭 高頂笠 直領 纒帶 …… 飯房·水房·燈燭上所, 主宮中燈燭之人謂之燈燭上所, 高頂笠 直領 氈帽 纒帶 坎頭”.

29 광주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시, p.117.

3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165, 197, 271.

31 국립민속박물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8, 마음을 담아 지은 사랑, 아이웃,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p.14.

32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12일 을사.

33 『세종실록』 134권, 오례 홍례 습. “襲 …… 首冠 【用羅, 製如頭】 …… ”.

34 『성종실록』 25권, 성종 3년 12월 16일 무인.

35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집에서 감투에 철릭을 입고 있었다³⁶는 기록도 보인다.

이처럼 여말선초의 감투는 왕의 수의용 관모로, 사대부의 편복 관모로, 군인의 방한모로, 낮은 신분의 하속(下屬)이 쓰는 관모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5.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지물

황희 일가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 중 황희 묘 석인상만 공수(拱手) 자세로 조성되었고 그 외에는 손가락을 드러내어 긴 형태의 무언가를 곧게 들고 있다. 경기도 소재 조선전기 감투를 쓰고 있는 석인상 중 교임형 철릭을 착용하고 있는 석인상은 모두 손에 검(劍)이나 장(杖)을 들고 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금형 철릭을 착용한 석인상은 지물 없이 공수 자세를 하고 있다. 또 직령 차림 석인상은 검을 든 모습과 공수 모습이 반반으로 확인된다.

진주강씨 묘 석인상은 양손으로 들고 있는 지물(持物)이 홀(笏)인지 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감투를 쓰는 인물이 홀을 들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진주강씨 묘역을 지키기 위해 검과 같은 무기를 든 무인석으로 볼 수 있다.

Ⅲ.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복식 추정

1. 감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복식 유형

감투형 석인상에 표현될 수 있는 복식 유형은 우선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려사』에서는 감투에 직령을 착용하도록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종실록』에서는 철릭을 착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경기도 소재 묘역의 석인상과 주변국가의 회화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에는 조선초기 감투형 무인석이 세워져 있는 묘역이 그리 많지 않다. 감투형 석인상은 대부분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초 석인상을 조성할 수 있는 유력 가문이 주로 서울 주변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감투형 무인석은 전국적으로 20여 곳에서 확인되었다. 경기지역 16곳³⁷, 대전광역시 1곳³⁸과 순창의 진주강씨 묘역 1곳

36 『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5일 임술.

표 3. 경기도 지역 묘역의 감투 석인상 현황

유형	묘주	생몰년	주요 경력	관 모	포류	허리띠	지물
유형1 (3건)	이애(李菱)	1363~1414	무신, 경신공주 남편	감투	대금형 철릭	포백대	없음(공수)
	황희(黃喜)	1363~1452	문신, 영의정	감투	대금형 철릭	광다회(술)	없음(공수)
	한언(韓堰)	1448~1492	문신, 형조참판	감투	대금형 철릭	토환대	없음(공수)
유형2 (2건)	이사겸(李思儉)	1381~1446	무신, 동지중추부사	감투	교임형 철릭	포백대	검
	박중손(朴仲孫)	1412~1466	형조판서	감투	교임형 철릭	포백대	검
유형3 (6건)	신숙주(申叔舟)	1417~1475	문신, 영의정	감투	직령	포백대	검
	성임(成任)	1421~1484	문신, 지중추부사	감투이엄	직령	포백대	없음(공수)
	송숙기(宋叔琪)	1426~1489	문신, 증이조참판	감투	직령	포백대	검
	노사헌(盧思愼)	1427~1498	문신, 영의정	감투(상모)	직령	포백대	검(사선)
	강귀손(姜龜孫)	1450~1506	문신, 우의정	감투이엄	직령	토환대	없음(공수)
	강태수(姜台壽)	1479~1526	문신, 순천도호부사	감투이엄	직령	토환대	없음(공수)
유형4 (2건)	윤희(尹熺)	1401~1443	증자헌대부	감투	-	-	철퇴
	남경문(南景文)	~15세기 초	문신, 증영의정	감투	방령 추정 (옆·뒤트임)	포백대	검
유형5 (2건)	이예견(李禮堅)	1436~1510	문신, 대사간	감투	공복	대	홀
	이우(李耦)	1466~1513	이예견 아들	감투	공복	대	홀

출처 : 이은주·송미경, 2012, p.64 (부분 발췌·수정)

등이다. 이처럼 지방에 세워진 무인석은 극히 드물다. 진주강씨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은 시기적으로 보아 4번째로 건립된 것으로, 전라도 지역에서는 최초이며 유일한 것이다.³⁹

경기 지역 사대부 묘 중 용인시 향토유적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여말선초 무신(武臣) 이애(李菱, 1363~1414)와 그의 부인 경신공주(慶愼公主, ?~1426) 묘⁴⁰나 남경문(南景文, 14세기 말~15세기 초) 묘⁴¹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조사한 석인상을 중심으로 감투형 관모의 무인석이 확인되는 묘를 정리해 보면 <표 3>⁴²과 같다. 모두 15건 정도인데 착용하고 있는 복장에 따라 대략 다섯 유형, 즉 ①대금형 철릭과 ②교임형 철릭 ③직령 ④방령포 ⑤공복으로 구분된다. 허리띠는 포백대(布帛帶)와 광다회(廣多繪), 토환대(吐環帶) 등이 확인되며 손에 홀이나 검, 철퇴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지물없이 공수 자세로 표현된 것으로 나뉜다(표 4).

37 황희 어머니와 아들 황수신 묘 2기가 추가되어 17건이다.

38 순창군, 2019, 앞의 책,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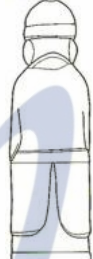
39 림재호, 2019, 「황희 정승 할머니 묘, 전북문화재 지정 '요청」, 열린 순창, 11월 13일, <http://reurl.kr/4635920EMP>.

40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191.

41 위의 책, p.187.

42 이은주·송미경, 2012, 앞의 논문, p.64.

표 4. 경기도 지역 감투형 석인상의 복식 유형

유형1 (대금형 철릭)	유형2 (교임형 철릭)	유형3 (직령)	유형4 (방령포)	유형5 (공복)
				
이애 묘 (1363~1414)	박중손 묘 (1412~1466)	신숙주 묘 (1417~1475)	남경문 묘 (미상~15C 초)	이우 묘 (1466~1513)
복두형 문인석 공존	-	복두형 문인석 공존	-	-

출처 : 경기도박물관, 2007, p.191,231,235,187,293

감투에 대금형 철릭을 착용한 <표 4>의 <유형 1> 사례는 이애(1363~1414) 묘의 무인석⁴³이다. 넓적한 감투를 쓰고 앞중심에 매듭단추 여밈의 대금형 철릭을 입고 손을 앞으로 모아 공수 자세로 있다. 허리에는 포백대를 매고 있으며 허리띠 위·아래로 철릭의 잔주름이 보인다. <유형 2>는 감투에 교임형 철릭을 입은 경우인데 안정감 있게 조각된 박중손(1412~1466) 묘역의 무인석⁴⁴이 대표적이다. <유형 3>은 신숙주(1417~1475) 묘의 무인석⁴⁵인데 직령을 입고 있다. 허리에 철릭과 같은 주름은 보이지 않고 옆선 트임 부분에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유형 4>는 남경문 묘역의 석인상⁴⁶인데 다른 석인상에 비해 길이가 짧은 포를 입고 있다. 앞은 대금형이며 뒤트임과 옆트임이 있다. <유형 5>는 이우 묘 석인상⁴⁷에서 볼 수 있다. 감투를 쓰고 공복으로 추정되는 광수포(廣袖袍)를 입고 홀을 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복식사 이론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석인상 외에 원대 풍속화에서 감투에 철릭을 입고 있는 모습(그림 8)⁴⁸과 직령을 입고 있는 모습(그림 9)⁴⁹을 볼 수 있다. 또 명나라 천순(天順) 4년(1460)에 세워진 중국 산서성(山西省) 보녕사(寶寧寺) 수륙당(水陸堂)의 수륙화(水陸畵)에는 감투에 대금형 방령포를

43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191.

44 위의 책, p.231.

45 위의 책, p.235.

46 위의 책, p.187.

47 위의 책, p.293.

48 Bradley Smith & Wan-go Weng, 1986, op. cit., p.205.

49 Ibid., p.204.



그림 8. 감투·철릭
(Bradley Smith &
Wan-go Weng 1985:205)



그림 9. 감투·직령
(Bradley Smith &
Wan-go Weng 1985:204)



그림 10. 감투·방령포
(刘永华 2006:160)



그림 11. 감투·답호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116)

입고 있는 모습(그림 10)⁵⁰이 보인다. 또 다른 회화 자료에서는 감투에 답호(그림 11)⁵¹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추출된 교임형 철릭, 대금형 철릭, 방령포, 답호, 직령과 같은 5종의 복식을 여말선초 감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남자복식으로 볼 수 있다.

2. 감투용 복식의 유형별 특징

(1) 교임형 철릭

철릭은 북방민족, 특히 몽골인들이 즐겨 착용하였던 옷으로, 저고리형 상의와 치마형 하의가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고려에서는 원간섭기에 철릭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말 1360년대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물 중 송부개(宋夫介, 생몰 미상)의 분홍 모시철릭(그림 12)은 허리에 선 장식이 있는 요선철릭[腰線帖裏]⁵²이다. 철릭에 요선을 두른 것은 기마 시 복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나라 이후 명나라 역시 사정은 우리나라와 같았다. 중국 산서성 보녕사 벽화(1460)에는 홍색 요선이 둘러진 토색(土色) 철릭을 입은 인물(그림 13)⁵³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 14〉는 중종대에 장예원 판결사를 지낸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에서 출토된 철릭이다. 조선전기 남자들이 가장 널리 착용한 옷이다. 평상 시에도 가장 흔히 입었을

50 刘永华, 2006, 中国古代 军戎服饰,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p.160.

51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The Legacy of Genghis Khan, New York, p.116.

52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서울, p.6.

53 刘永华, 2006, 앞의 책, p.160.



그림 12. 1360년대 해인사
요선철릭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6)



그림 13. 1460년 보녕사
벽화 속 요선철릭
(刘永华 2006:160)



그림 14. 1520년대 김흥조 묘
철릭
(영주시 1998:8)

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고급 소재의 고름바대[入雀]⁵⁴ 장식을 하여 용복(戎服)으로도 착용하였다. 명대 출토용(出土俑) 중에는 감투를 쓰고 반수(半袖) 철릭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다.⁵⁵

석인상에 철릭이 표현될 때 가장 큰 특징은 허리띠 주변에 표현된 주름 모습이다. 포천에 있는 이사검(李思儉, 1381~1446) 묘 석인상(그림 15)⁵⁶과 파주에 있는 박중손(朴仲孫, 1412~1466) 묘 석인상(그림 16)⁵⁷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투에 교묘형 철릭을 입고 허리에는 포백대를 돌렸으며 양손으로 긴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은 예서는 복식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여말



그림 15. 이사검(1381~1446) 묘
감투·철릭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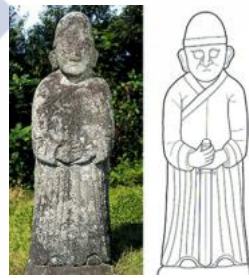


그림 16. 박중손(1412~1466) 묘
감투·철릭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230~231)

54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 2월 24일 갑신. 『중종실록』에는 입작(入雀)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악학궤범』 권8의 정대업 정재의물 오색단갑의 바대[八的] 기록을 볼 때 『중종실록』 ‘입작’은 ‘바대’의 차자표기에 해당하는 ‘팔작[八雀]’으로 보는 것이 옳다.

55 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喜劇出版社, 北京, p.436.

56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213.

57 위의 책, pp.230~231.

선초에 감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다섯 복식 유형 중 착용 가능성이 큰 옷 중의 하나가 철릭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석인상에서 감투에 철릭을 착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고 게다가 손에는 모두 무기 종류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2) 대금형 철릭

철릭은 교임형 철릭이 일반적이지만 대금형 철릭도 있다. 석인상 중에서 용인시 향토유적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는 태조의 만사위와 장녀인 이애(李薆, 1363~1414)·경신공주



그림 17. 이애(1363~1414)·경신공주(?~1426) 묘 무인석과 도면
(경기도박물관 2007:190~191)



그림 18. 황희1363~1452 묘 무인석과 도면
(경기도박물관 2007:214~216)



그림 19. 한연(1448~1492) 묘 무인석과 도면
(경기도박물관 2007:248~249)

(慶愼公主, ?~1426) 묘 석인상(그림 17)⁵⁸과 경기도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희(黃喜, 1363~1452) 묘 석인상(그림 18)⁵⁹, 부천에 있는 한언(韓堰, 1448~1492) 묘 석인상(그림 19)⁶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금형 철릭이 묘사되어 있는 석인상에는 지물이 없다. 따라서 무기를 들고 있는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복식이 대금형 철릭일 가능성은 적다.

(3) 방령포

상모 장식의 감투나 투구(또는 투구형 관모)를 쓴 석인상 중에 무릎 길이의 대금형 상의를 입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그리고 옆선과 뒤중심에 트임이 있다. 윤희(1401~1443), 남경문(15세기 초), 임원준(1423~1500), 정승조(1442~1503), 연일정씨(1460~1520), 신항(1477~1507), 이길(1509~1565) 묘 등, 7기의 묘역에서 확인되는데⁶¹ 특히 감투는 윤희 묘⁶²와 남경문 묘 석인상(그림 20)⁶³에서 확인된다. 다른 포에 비하여 길이는 약간 짧게 표현되어 있다. 손에는 철퇴나 검을 들고 있다. 이 두 묘의 석인상은 모두 긴 팔의 방령으로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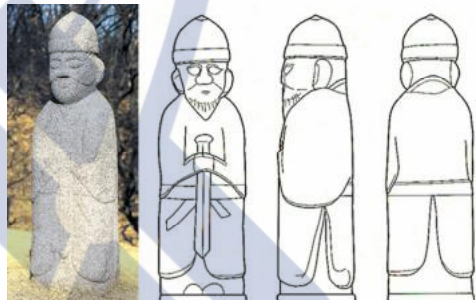


그림 20. 남경문 묘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186~187)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그림 3·4)의 복식은 길이가 짧지 않고 옆·뒤트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방령포로 보기는 어렵다.

(4) 답호

원대의 회화인 〈그림 11〉에는 감투에 답호(襜褕)를 착용하고 있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명대 보녕사 벽화 속 인물은 감투 대신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을 쓰고 철릭으로 추정되는 토색 착수포 위에 푸른 색 답호를 입고 있다(그림 21).⁶⁴ 〈그림 22〉⁶⁵는 1360

58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p.190~191.

59 앞의 책, pp.214~215.

60 앞의 책, pp.248~249.

61 이은주·송미경, 2012, 앞의 논문, p.70.

62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208.

63 위의 책, pp.186~187.

64 刘永华, 2006, 앞의 책, p.160.

65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앞의 책, p.7.

년대의 고려 말 해인사 정보박물관 소장 답호인데 보녕사 벽화의 답호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처럼 14~15세기 중기 답호(그림 21·22)는 옆선 안으로 안주름무가 고정되어 있다.

진주강씨 묘 석인상의 볼록한 어깨 부분을 반소매의 옷 표현이라고 본다면 답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석인상의 옆면에는 허리 아래로 옆트임을 짐작할만한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석인상에서 감투·답호 차림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진주강씨 묘 석인상의 복식을 답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21. 1460년
보녕사 벽화 속 답호
(刘永华 2006:160)



그림 22. 1360년대
비로자나불복장 답호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7)

(5) 직령

감투와 착용할 수 있는 복식 중에는 직령도 있다. 『고려사』에서 이미 하급 이서들의 관복으로 감투에 직령을 착용한다는 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 지역 15세기 사대부 묘역의 석인상 중에서도 감투에 직령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석인상에 표현된 직령은 교임형의 끝은 깃과 허리 아래 옆선 트임과 트임 주변의 주름 묘사가 특징이다.

경기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의정부 소재 신숙주(申叔舟, 1417~1475) 묘 석인상(그림 23)⁶⁶은 감투에 직령을 입고 있다. 측면 도면에 옆선 트임과 주름이 묘사되어 있다. 군포의 송숙기(宋叔琪, 1426~1489) 묘 석인상(그림 24)⁶⁷은 감투에 직령을 입고



그림 23. 신숙주(1417~1475) 묘
감투·직령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236)



그림 24. 송숙기(1426~1489) 묘
감투·직령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246~247)

⁶⁶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236.

⁶⁷ 위의 책, pp.246~247.



그림 25. 강귀손(1450~1506) 묘
감투이엄·직령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274~275)



그림 26. 성임(1421~1484) 묘
감투이엄·직령 석인상
(경기도박물관 2007:240~241)



그림 27. 보녕사
벽화(1460) 속 직령
(刘永华 2006:160)

검을 들고 있다. 강귀손(姜龜孫, 1450~1506) 묘의 석인상(그림 25)⁶⁸은 상모를 단 감투이엄에 직령을 착용하고 토환대를 묶은 모습이다. 또 파주시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임(成任, 1421~1484) 묘 석인상(그림 26)⁶⁹은 감투이엄을 쓰고 옆무가 밖으로 돌출된 형태의 직령을 입고 있다. 안팎주름무 직령을 표현한 것인데 이처럼 무를 돌출된 형태로 묘사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진주강씨 생시에는 옆선 안에 들어가 앞뒤로 각각 고정되는 안주름무 양식의 직령이 유행하던 시기이므로 실제 직령 모습은 수륙화 속의 인물(그림 27)⁷⁰이 입은 옷과 유사한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진주강씨 묘 석인상의 복식이 직령이라면 옆선 트임의 음각선 흔적이 있을 것인데 전혀 옆트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주강씨 묘 석인상을 직령 차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IV. 결론

이 연구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한 익성공 황희(黃喜, 1363~1452)의 조모 진주강씨 묘역에 조성된 감투형 석인상을 통해 석인상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밝히고 감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여말선초 남자복식을 추정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세기 전기에 생존한 인물로 추정되는 진주강씨(晉州姜氏, 14세기 전기 생존) 묘역의 석인상은 손자 황희가 세종 24년(1442)에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68 위의 책, pp.274~275.

69 위의 책, pp.240~241.

70 刘永华, 2006, 앞의 책, p.160.

둘째, 진주강씨 묘역에 조성된 1쌍의 석인상은 높이 111cm, 117cm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현재 마모되고 부식된 상태여서 복식의 세부적인 형태 파악은 어려웠다. 그 중 확실하게 파악되는 것은 관모 ‘감투’였다. 황희 일가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의 감투 형태를 비교해본 결과,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감투 형태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감투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말선초에 감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복식을 석인상 자료와 문헌·회화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교임형 철릭이나 대금형 철릭, 방령포, 답호, 직령 등 5종의 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검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는 진주강씨 묘역의 감투형 석인상 복식으로는 교임형 철릭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이 양손으로 잡고 있는 긴 물체를 검 등의 무기로 판단함에 따라 묘주를 보호하는 무인석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은 조선전기 석인상 연구의 사료적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 초 지방에 조성된 드문 석인상 사례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북 순창에 세워진 진주강씨 묘역의 석인상 모습을 비교하면서 ‘감투’ 형태를 통해 진주강씨 묘역 석인상의 복식사료적 가치를 밝혔으며 여말선초 감투와 함께 착용하였던 남자복식을 밝힌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甲辰漫錄』
 『高麗史』
 『國朝五禮儀』
 『東事日知』
 『三才圖會』
 『宣祖實錄』
 『成宗實錄』
 『世宗實錄』
 『樂學軌範』
 『中宗實錄』
 『太宗實錄』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
 국립민속박물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8, 마음을 담아 지은 사랑, 아이웃,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金恩姘, 2006,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경기도.
 南京博物院, 1993, 南京博物院藏肖像畫選集, 文物出版社, 北京.
 刘永华, 2006, 中国古代 军戎服饰,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6,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篇(下).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서울.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경상북도 안동시.
 榮州市, 1998, 判決事 金欽祖 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尹香林, 2003, 『廣才物譜』의 표기법과 음운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경상북도.
 이은주·송미경, 2012,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무인석상 복식에 대한 고찰, 韓服文化 15(2).
 임영근, 2005, 原州地域 墓의 文人石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10.
 鄭良婉 외, 1997,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物名攷·廣才物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喜劇出版社, 北京.

周汎·高春明, 1996, 中国衣冠服飾大辞典,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崔允貞, 2005, 조선시대 金冠朝服型 文人石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서울.

한주영, 2006, 17~18세기 문인석에 나타난 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Bennett, Terry, 1997, *Korea : Caught in Time*, Reading, Garnet Publishing Ltd. : UK.

Clunas, Craig & Jessica Harrison-Hall, 2014, *Ming*, Univ. of Washington, Seattle.

Smith, Bradley & Wan-go Weng, 1986, *China : A History in Arts*, Doubleday & Co.,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The Legacy of Genghis Kha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열린 순창, <http://www.openchang.com/>.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의 풍수지리,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9371&categoryId=49371>.

Stone Statues' Costumes in the tomb of Jinju Kang Clan in Sunchang-gun, Jeollabuk-do

Lee Eun-Joo

Professor, Dept. of Content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ultural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value of the stone statues' historical data by estimating the costume of the stone statues wearing a Gamtu standing at the Jinju Kang Clan(晉州姜氏) tomb, the great-grandmother of Hwang Hui(黃喜, 1363~1452), located in.

First, the stone statues of Jinju Kang Clan tomb, which lived in the early 14th century, were made by Hwang Hui in the mid-15th century. But the costumes of stone statues were made i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costumes where the owner of the tomb lived.

Second, there are one pair of stone statues in the Jinju Kang Clan tomb, which is small in size. However, the specific form of costumes was difficult to identify due to serious damage such as wear and corrosion over the years.

Third, the stone statue of Jinju Kang Clan tomb was wearing a low height *Gamtu*(甘套), which were lowly expressed in the form of Gamtu. Since the end of the Goryeo, the characters wearing a Gamtu were confirmed in the literature and painting materials that they wore a *Gyoimhyeong*(交衽形) *Cheollik*(帖裏) or a *Daegeumhyeong*(對襟形) *Cheolrik*, a *Bangnyungpo*(方領袍), a *Dapho*(褶襖) and a *Jikryeung*(直領). Among them, it was estimated the stone statue of Jinju Kang Clan tomb was wearing a *Gyoimhyeong* *Cheollik*.

Fourth, a long object held by both hands of the stone statue of Jinju Kang Clan tomb was judged as a sword-like weapon, and accordingly the stone statue was named as a stone statue of military official protecting the owner of the tomb.

Fifth, the stone statue of Jinju Kang Clan tomb, the great-grandmother of Hwang Hui,

was a rare exampl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made in the province, which turned out to be valuable as a historical material for the stoneworks research in Joseon Dynasty.

Keywords : Jinju Kang Clan, Sunchang, Hwang Hui, Stone Statue of military official,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Gamtu



조선시대 왕의 염습의대(斂襲衣櫛)에 관한 연구

정말숙*

■ 논문요약

인간은 탄생과 함께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착용하게 되는 복식은 신체보호 차원을 넘어 착용자의 신분·윤리·문화 등을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

조선왕조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복식은 그 자체로도 신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유교 사상을 치국의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신분인 왕에게 있어 사후 복식인 염습의대는 왕실의 권위와 대행왕에 대한 최후의 예장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조선왕실에서는 사·서인과는 차별화 된 오례를 정하여 전반적인 왕실의례는 이를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 흉례(凶禮)는 상례와 관련된 의식으로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에 처음 제정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완성되었으며 국말까지 이를 준용하였다.

왕의 염습의대에 관한 기록은 흉례절차 중 염습절차에 나타나 있으며, 의대란 복식을 뜻하는 왕실 용어이며, ‘염습의대(斂襲衣櫛)’란 시신에 입혀지는 옷으로, 현행 수의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 전반기의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왕의 염습의대는 조선 후반기까지 변함없이 준용되었으며, 상복(上服)으로는 습(襲)시 곤룡포, 소렴(小斂)시 강사포, 대렴(大斂)시 면복의 사용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말기 고종 대렴의대는 상복으로 면복의 기록은 없고 황룡포의 기록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의 단령·답호·철릭이 단령·답호·중치막으로 변화하였으며, 소렴·대렴시 산의(散衣)로는 각종 편복포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은 염습의대의 상복을 사·서인이 사용할 수 없었던 곤룡포·강사포·면복을 사용함으로써 국왕이라는 최고의 신분에 부합되게 사후에도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수의, 습의대, 소렴의대, 대렴의대, 왕의 염습의대

* 서울중합예술실용학교 외래강사, E-mail : 99mal@hanmail.net

| 투고일 | 2019.11.10

| 심사개시일 | 2019.11.17

| 심사완료일 | 2019.12.13

| 게재확정일 | 2019.12.23

I. 머리말

인간은 탄생과 함께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착용하게 되는 복식은 신체보호 차원을 넘어 착용자의 신분·윤리·문화 등을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

조선왕조는 유교사상을 국가 건국·치국 이념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급 신분사회로서 복식은 예를 갖추는 최상의 척도로, 복식자체에도 계급성이 부여되어 상하·존비·귀천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왕은 최고의 신분으로써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사후 마지막 예장인 염습의대에서도 왕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할 수 있는 복식이 사용되었다.

‘염습의대(斂襲衣櫛)’라 함은 시신에 입혀지는 옷으로 현행 수의를 말하는 것이며, 의대는 복식을 뜻하는 왕실용어로 왕의 염습의대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전반기 문헌인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후반기 문헌인 『국조상례보편도설(國朝喪禮補編圖說)』·『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실의 의례는 吉禮(길례)·嘉禮(가례)·賓禮(빈례)·軍禮(군례)·凶禮(흉례)의 오례(五禮)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며 오례 중의 하나인 흉례는 왕실의 상례로서 특히 왕의 국휼은 차기 왕으로의 왕권승계도 포함된 국가의 대사이며 왕실권위와도 관련된 중요한 의식이었다.

조선시대 염습의(斂襲衣)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¹⁾는 신분의 구분없이 전반적인 염습의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최고신분인 왕의 염습의대를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문헌에 변화된 염습의대를 비교·분석하여 대부·사서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왕이라는 신분적 계급의 특수성이 보여주는 염습의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왕실 흉례의식과 왕의 염습의 절차

흉례는 왕실의 상장에 관련된 의식과 산릉의 제사·시호와 책보를 올리는 의식이다. 국왕

1) 광명숙, 1992, 우리나라 수의 문화와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김진아, 2001,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도.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송미경, 1989,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순남숙, 1999, 다산의 염습의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유관순, 1990,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조선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장미선, 1999, 상례의식과 습복에 관한 고찰—조선시대 국상과 서인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이나 왕비·왕세자와 세자빈 등의 흉거 시에는 국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의식과 신위를 모시는 부모의식 등이 흉례에 속하며,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5개월장을 치르고 궁안에서 삼년상을 치른뒤 종묘에 신주를 봉안한다.² 이러한 왕실의 흉례는 『세종오례의』에 최초로 정제되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성종 5년(1474)에 완성한 『국조오례의』에는 『세종오례의』의 66항목보다 23항목³이 추가된 89⁴항목의 의식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상례절차 중 시신에 옷을 입히고 감싸는 과정을 염습의(斂襲儀)라고 하는데⁵, 습의(襲儀)는 시신에 직접 옷을 입히는 과정이고, 소렴의·대렴의는 습의(襲衣, 壽衣)가 입혀진 시신을 다시 금(衾)으로 둘러싸고 교(絞)로 묶는 과정을 말한다.⁶

왕의 흉거(薨去)부터 염습의 마지막 절차인 대렴까지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왕의 유교를 받드는 [1]국휼고명(國恤顧命) 후에 신면을 코에 대어 솜의 흔들림 여부로 죽음을 확인하는 [2]초종(初終) 후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3]복(復)을 행하고 나서, 머리를 풀고 소복으로 갈아 입고 3일 동안 먹지 않는 [4]이복불식(易服不食) 후, 조정에서 각 기관이 전담할일을 지시하는 [5]계령(戒令)이 내려지면 비로소 [6]목욕의(沐浴儀)를 행하고, [7]습의(襲儀)를 행한 후에 예찬인 습전(襲奠)을 올리고, 자리를 정하여 부복하고 곡하는 의식인 [8]위위곡(爲位哭), 종친 및 문무백관들이 위문하는 [9]거임의(擧臨儀), 시신의 입에 쌀과 구슬을 채워 넣는 [10]함(含),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빙반을 설치하여 얼음을 채우는 [11]설빙(設冰), 함을 만들어 교에 안치하는 [12]영좌(靈座), 강단자에 [13]명정(銘旌)을 만들어 장대에 꽂아 영좌 오른쪽에 놓고 사직·영녕전·종묘에 고문을 써서 고하는 [14]고사묘(告社廟) 후에 습의(襲衣)를 입힌 시신을 다시 금(衾)으로 둘러싸고 교로 묶는 [15]소렴의(小斂儀)를 마치고 소렴전(小斂奠)을 올리면 내관을 만드는 의식인 [16]치장(治綽) 후에 소렴시 금으로 둘러싸고 교로 묶은 시신을 다시 한번 더 금으로 둘러싸고 교로 묶는 [17]대렴의(大斂儀)를 행하고 나서 대렴전(大斂奠)을 올리는 것으로 염습의 절차는 끝이 난다.⁷

2 한영우, 2005, 조선왕조 의례, 일지사, 경기도, p.36.

3 23항목 중에 위향제거매의·성복의·거임의·제복의 등은 명 황제 상시(喪時)에 조선왕실에서 행해진 의식절차로, 이는 중국에 대한 사대정책이 강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 대부·사서인상은 생략하였다.

5 조효순, 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경기도, p.303.

6 순남숙, 1999, 다산의 염습의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p.46.

7 『國朝五禮儀』 卷之7 凶禮 沐浴·襲·小斂·大斂

Ⅲ. 조선전기 문헌에 기록된 왕의 염습의대

조선전기 왕의 염습의대를 고찰할 수 있는 문헌은 예서인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와 이를 법제화 시킨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서이며, 이는 국휼시 염습절차에 이와 같이 준용하자는 것으로 세종 이후의 왕들에게는 이에 규정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왕에게 임혀진 세부적인 기록은 아니다.

『세종오례의』는 『세종실록』 권지 134 오례 중 흥례에 상복·명기·복완·거여·길장·흉장·집사관 등 국상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그림과 설명은 서례부분에, 흥례 66절차는 의식부분에 나뉘어져 기술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왕실중심의 상장의례로 구성되어 있으며,⁸ 염습의대에 관한 기록은 목욕·습·소렴·대렴의 의식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조오례의』는 국가의례의 큰 골격을 설명해 놓은 것으로 의례가 있을 때마다 표준서로서 참고가 되었으며,⁹ 『세종오례의』 흥례를 바탕으로 하여 성종 5년(1474)에 완성되었으며 일부 추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세종오례의』 흥례와 순서까지 동일하며 초두에 위황제거애의를 두어 명과의 사대명분을 강화하였으며, 대부·사서인상을 실어 왕실의 상례와 차별을 두는 한편 유교식 상장례의 확립을 꾀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¹⁰는 의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참고사항을 오례의 순서대로 설명하고 그 도설을 붙인 책으로 『국조오례의』와 같은 해에 완성되었으며, 염빈도설(斂殯圖說)과 복완도설(服玩圖說)에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염빈도설에는 소렴교·대렴교·모에 관하여 그림과 함께 설명을 첨부하였다.

복완도설에는 먼·규·의·상·중단·폐슬·패옥·수·적석·홍말의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보아 대렴의대에 사용된 면복 일습에 관한 구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¹¹

〈표 1〉은 『세종오례의』와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왕의 염습의대를 비교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규정된 염습의대는 습의대를 제외한 소렴·대렴시 상복인 강사포와 면복 이외의 복식은 산의로 표기해 놓아 어떠한 종류의 복식이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습의대의 이의로 사용된 답호와 철릭과 같은 편복포류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8 정중수, 1994, 조선초기 상장의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p.71.

9 한영우, 2005, 앞의 책, p.36.

10 『國朝五禮儀』 서례 권지 5 흥례 복완도설

11 『國朝五禮儀』 서례 권지 5 흥례 복완도설

표 1. 『세종오례의』·『국조오례의』 중 왕의 염습의대 비교

항목	『世宗五禮儀』		『國朝五禮儀』	
沐浴	明衣	白絹單衣	明衣 方巾	白絹單衣 白絹 方尺一尺八寸
襲	大帶一	表裏白羅紅綠緣	大帶一	表裏白羅紅綠緣
	袞龍袍一	卽胸背織龍圓領	袞龍袍一	卽胸背織龍圓領
	紵絲褙護一	卽半臂衣	紵絲褙護一	卽半臂衣
	帖裏一		帖裏一	
	羅圓領一		羅圓領一	
	褙護一		褙護一	
	帖裏一	己上鋪襲	帖裏一	己上鋪襲
	紅紵絲圓領一		紅紵絲圓領一	
	褙護一		褙護一	
	帖裏一		帖裏一	
襲	白絹裏肚一		白絹裏肚一	
	白絹汗衫一		白絹汗衫一	
	白絹袴二		白絹袴二	
	白絹襪一	己上被體	白絹襪一	己上被體
		凡九稱雜用褙護		於其上凡九稱雜用褙護
	網巾	代用皂羅	網巾	代用皂羅
	首冠	用皂羅製如咎頭	首冠	代用皂羅制如則咎頭
	充耳二	用新綿棗核大	充耳二	用新綿棗核大
	幘目一	用青羅裏纏綃 方尺二寸四角	幘目一	用青羅裏纏綃 方尺二寸四角
		安紫綃帶於後結之		安紫綃帶於後結之
小斂	握手二	用青羅裏纏綃 長尺二寸廣五寸 安紫綃帶二結於掌後	握手二	用青羅裏纏綃 長尺二寸廣五寸 安紫綃帶二結於掌後
	履一雙	赤履	履一雙	赤履
	布絞,袞,散衣	斂衣 十九稱	布絞,袞,散衣	斂衣 十九稱
	絳紗袍一襲	皆用復衣復袞	絳紗袍一襲	皆用復衣復袞
	絞,袞,散衣	斂衣九十稱皆用復衣復袞	絞,袞,散衣	斂衣九十稱皆用復衣復袞
	冕服一襲	皆佩玉安於梓宮內左右玉圭	冕服一襲	皆佩玉安於梓宮內左右玉圭
	錦冒黼殺各一	亦左右冠體除竹網糊紙作穀	錦冒黼殺各一	亦左右冠體除竹網糊紙作穀
		裏以皂毛羅安於梓宮內北		裏以皂毛羅安於梓宮內北
	繡黼棺衣	用紅紵絲製之以紛彩畫斧形	繡黼棺衣	用紅紵絲製之以紛彩畫斧形

IV. 조선후기 문헌에 기록된 왕의 염습의대

조선후기 왕의 염습의대를 고찰할 수 있는 문헌은 예서인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국조상례보편도설(國朝喪禮補編圖說)』과 실증적 연대기 기록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빈전혼전도감의궤(殯殿魂殿都監儀軌)』이다.

조선 후기에는 특정 왕에 관한 기록이 현전하므로, 인조부터 순종까지 사용된 염습의대에 관하여 자세한 고찰이 가능하다.

1. 『국조상례보편』·『국조상례보편도설』

『국조상례보편』은 영조 28(1752)년, 34(175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조오례의』에 실린 상례에 관한 부분만을 보충·개편한 것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원서, 즉 『국조오례의』와 의궤의 기록을 함께 비교 하고 있다. 구성은 의주·제구(諸具)·도설로 되어 있으며, 빈전과 빈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제구는 의대를 포함한 상례에 소용된 모든 물품을 통칭하고 있다.

변화된 내용은 습시 대대는 옥대로, 바지 2개 중 하나는 단고(單袴)로, 답호를 답복(襜褕)으로 오기하였으며, 곤룡포는 평일진어자(平日進御者)로, 의금등물(衣衾等物)은 내비로 원서(국조오례의)에는 상의원에서 새로 준비하던 것을 평소 착용하던 것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망건은 조라에서 아청사로, 수관은 익선관으로, 띠의 겉은 청라에서 모단으로 안은 훈초에서 홍광직으로 대는 자초에서 모단으로 대용되었으며, 악수도 띠의 변동사항과 같다. 리도화로 바뀌었다.

소렴시 염의 19칭은 의궤의 산의 19칭¹²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영조 이전 시기의 『빈전삼방의궤』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복(喪服)에 쓰이는 환질(環絰)·마승(麻繩)·수길(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의 기록은 영조의 『빈전삼방의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도설』은 영조 28년 『국조상례보편』에서 한권의 별책으로 따로 편찬되어 그림과 함께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여기에는 상례에 관련된 물품의 도상과 설명이 상세히 쓰여 있는데, 왕의 염습의대로는 상복인 곤룡포·강사포·면복 일습만이 나타나 있고, 그 외에 이의(裏衣)로 사용된 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의주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였던 부분을 도상으로 보완해줌으로 『도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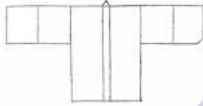
12 『國朝喪禮補編』 卷一 18 소렴 제구

紵絲汗衫三白紵布, 單衣三表紅廣織裏白絹, 單衣三表綠紗無紋裏白絹, 袂帖裏二表紅紗無紋裏白絹, 帖裏二白紵布, 袴三表白紡紬裏白紵布, 裹肚三表綠廣織裏白鼎紬

(1) 목욕의대

목욕의대로는 명의를 상이 있으나 상은 내상에 소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명의를 ‘소이 욱후첩신자(所以浴後貼身者)’라 하여 목욕후 습의를 행하기 전까지 시신에 임시로 입혀두는 옷이다.(표2)

표 2. 『국조상례보편도설』 중 왕의 목욕의대

節次	名稱	圖	說
沐浴	明衣 [所以浴後貼身者]		衣裳用白綃袂屬幅(不削幅古者布幅二尺二寸凡用布皆削裁左右邊各一寸) 衣長過膝裳前三幅後四幅不裷長及靸(足沓) 別用白綃綴前後幅而夾縫之兩端有繫

(2) 습의대와 제구

습의대와 제구는 곤룡포·익선관·망건·옥대·화·갑정·말·떡목·충이·모로 기록되어 있다.(표3)

표 3. 『국조상례보편도설』 중 왕의 습의대

節次	名稱	圖	說
襲	袞龍袍 [用平日所御者]		袍用六雲紋紅緞別用紅緞圓裁作本以金線織五爪龍綴於袍之胸背及左右肩(小喪八雲紋鴉青緞織四爪龍)
	翼善冠		冠糊紙作穀裏以皂毛羅裏鴉青熟綃大小各兩角貼後向上
	網巾		網巾用鴉青無紋紗上端裷積用紫甲紗紉以縮之以泥銀畫雙圈子 圈子上綴冒緞小彙子下兩端安冒緞繫
	玉帶		帶用厚紙作靸裏以紅廣織(內喪藍廣織)表冒緞以泥銀畫鈔(卽帶錢大小凡二十枚)兩端安冒端繫
	靴		靴表用冒緞裏白紬糊紙爲之上緣綠廣織
	甲精		甲精用白紬爲表裏緣同上
	襪		襪用白熟綃爲表裏(內喪又用紅襪紅廣織小喪又用黑襪冒緞爲表裏)

節次	名稱	圖	說
	幌目 [所以覆面者]		幌目表用冒緞裏紅廣織方尺二寸(用周尺下並同)充之以纈(雪綿)四角安冒緞繫
	幄手 [所以裏手者]		幄手表裏幌目長尺二寸廣五寸縷中旁寸(三分其長取中央四寸後兩邊各裁入一寸削約之)下兩端安冒緞繫
	充耳 [所以塞耳者]		充耳用雪綿牀如棗核
	冒 [所以掩形者 臨時稟旨造 入受教]		冒上曰質用玄錦緞長齊手下曰殺用紅廣織以泥銀畫斧(柄用泥金) 長三尺縫合一頭又縫連一邊餘一邊不縫上下安紫綃帶各七(帶長二尺)

(3) 소림의대와 제구

소림에 사용된 의대와 제구로는 교금·강사포·중단·패로 기록되어 있다.(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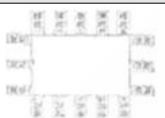
표 4. 『국조상례보편도설』 중 왕의 소림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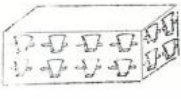
節次	名稱	圖	說
小斂	絞衾		斂絞用白紡紬橫者三幅(取足以周身相結)縱者一幅(取足以掩首至足而結於身中)每幅析其兩端爲三條橫幅留中八寸餘(用布帛尺)縱幅留三分之二不析
	絳紗袍 [袍以下至佩 用平日所御 者]		袍用紅熟綃
	中單		中單用白熟綃領標襖裾(標袖端襖緣裾後裾也)並用紅熟綃以泥金繪黻十一於領(後一左右各五○小喪繪九後一左右各四)
	佩		佩用緞作本表五色(赤青玄纁綠) 交織緞裏紅熟綃仍以五色餘絲結網綬垂之去佩玉銀鉤以唐粉畫佩泥金畫鉤(內喪小喪長衫畫佩同○大斂冕服佩制同)

(4) 대렴의대와 제구

대렴에 사용된 의대와 제구는 교금·면복·일습·관의의 기록이 있다.(표5)

표 5. 『국조상례보편도설』 중 왕의 대렴의대

節次	名稱	圖	說
大斂	絞衾		大斂絞用紡紬同小斂 橫者二幅通身劈裂爲六條去一用五.縱者一幅析其兩端爲三條三分長留中一分
	冕		冕(卽平天冠)版與體糊紙爲之版廣八寸(用造體器尺)長尺六寸前圓後方表冒緞裏紅廣織體高前八寸五分後九寸五分裏以皂毛羅版底玉樑兩旁玉瑱並以唐粉畫之前後九旒以五色紬造成(每旒九玉五彩先朱次白次蒼次黃次黑)粧飾以金箋紙付左右安紅絲纓(多繪○小喪八旒每旒八玉三彩先朱次白次蒼玉瑱畫以朱粉)
	圭 [圭以下至赤烏用平日所御者]		圭用白玉長九寸(用周尺) 博三寸炎首寸五分(小喪青玉長七寸)
	衣		衣用鴉青熟絹繪五章(龍山火華蟲宗彝○小喪繪三章火華蟲宗彝)衣袂皆有緣
	裳		裳用紅熟絹前三幅後四幅前三左右繡四章(藻粉米黼黻)有緯有綏(側緣曰緯下緣曰綏)腰間襷積無數別用紅熟絹綴前後幅兩夾縫之兩端有繫
	大帶		帶表用白熟絹裏紅熟絹縹(繞腰)緣綠紅熟絹紳(垂下)緣綠熟絹紐結處兩旁安青組繫
	中單		衣用白熟絹領袂襖裾用鴉青熟絹繪黻同絳紗袍中單衣
	綬		綬表裏與網綬同珮制去金環用泥金畫之
	方心曲領		方心曲領用白熟絹兩旁有纓(左綠右紅)領右當肩處安團樞
	鞞		鞞(卽蔽膝)用紅熟絹爲表裏前面以五色交絲圍縫三面去上五寸下兩行繡四章(藻粉米黼黻)

節次	名稱	圖	說
	紅襪		襪表用紅熟絹裏紅紵布後面上端留寸不縫其兩旁安紅熟絹繫
	赤鳥		鳥表用紅熟絹裏白熟絹純及綬兒(卽蘇兀)用鴉青眞絲左右及後從純側綴白絹小彙子用紅絹爲基貫彙而結之
	棺衣		棺衣用紅廣織長廣從梓宮二粉彩畫黼二十四(左右各八上下各四○結裏後大棺衣制同而稍大下玄宮時三重棺衣中紅棺衣畫黼同)

2.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록문헌으로 『세종오례의』를 포함한 영조¹³·정조¹⁴·순조¹⁵·고종¹⁶·순종¹⁷의 염습의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습의대

습의대는 영조·정조의 기록이 있으며 상복(표의)으로 곤룡포가 사용되었으며, 답호·중치막·주의·단삼·장의 등의 이의류(裏衣類)와 하의인 바지는 고·단고·대고로 되어 있다. 또한 제구는 화옥대·요대·어대자·토수·행전·말·화·망건·조모·익선관·악수·떡목·전조급낙치발낭(현행 오냥에 해당됨)·금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¹⁸

(2) 소렴의대

소렴의대는 다섯 왕 모두의 기록이 있다. 강사포 일습이 상복(上服)으로 사용되었는데 원유관·상의·하상·화패옥·폐슬·적말·적석을 일습으로 갖추었으며, 이의(裏衣)로는 곤룡포·황포·원령·답호·중치막·철릭·도포·장의·창의·광수·협수·쾌자·배자·군복 등이 사용되었으며 제구로는 교·금·토수·행전이 사용되었다.

13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3월 5일 병자, 영조 52년 3월 6일 정축, 영조 52년 3월 9일 경진

14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6월 29일 경진, 정조24년 7월 3일 계미

15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 11월 15일 병자, 순조 34년 11월 17일 무인

16 『순종실록부록』 10권 순종부록 12년 1월 24일, 순종부록 12년 1월 26일

17 『순종실록부록』 17권 순종부록 19년 4월 27일

18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3월 5일 병자,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6월 29일 경진

(3) 대렴의대

대렴의대는 영조·정조·순조·고종의 기록이 있는데, 상복(上服)으로는 면복 일습이 면류관 또는 면관·의·상·패옥·후수·화옥대·방심곡령·적말·적석을 갖추어 사용되었으며 평일소어라 하여 평시 착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황룡포는 고종의 대렴시 상복(上服)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면복의 기록은 없다. 이외에 조복 또는 삼·상·대대·후수를 갖춘 강사포, 답호·장의·협수·패자·금룡홍배를 갖춘 곤포, 중치막·도포·군복 또는 패자·주의가 있으며 제구로는 교·금·육·오색낭·구의(樞衣)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4) 재궁의대

재궁의대는 영조·정조·순조의 기록이 있으며, 대렴시 재궁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재궁의 빈 곳을 복식이나 직물 등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면복과 곤룡포 조선전기 포제인 단령·직령·답호·철릭과 조선후반기 포제인 중치막·도포·협수·장의·주의·창의·군복·패자·광수 등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삼(裏衫)·저고리(赤古里)·사구삼(四揆衫)은 재궁의대에만 기록되어 있다.

3. 『빈전(혼전)도감의궤』

의궤란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치르고 나서 의례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실행보고서로, 『빈전(혼전)도감의궤』(이하 빈전도감의궤라 칭한다)의 구성은 「도청의궤(都廳儀軌)」와 빈전일방(殯殿一房)·빈전이방·빈전삼방·빈전별공작(殯殿別工作)의궤로 구성¹⁹되어 있으며 「도청의궤」의 의주와 「빈전삼방의궤」(이하 삼방의궤라 칭한다)에서 왕의 염습의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주에 기록된 목욕·습·소렴·대렴의대는 인조²⁰부터 철종²¹에 이르기까지 의주의 내용은 『국조오례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의복·관·대의 명칭, 직물 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숙종²²은 “리(裡)”를 “리(裏)”로, 경종²³은 습의주에 원령(圓領)을 단령(團領)으로, 수관의주에 ‘감두척폭건(敢頭則幅巾)’을 ‘익선관(翼善冠)’으로 대용하였으

19 정옥자, 2004,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Ⅱ, 서울대학교규장각, 서울, p.172~200.

20 인조빈전도감의궤, 효종즉위년 1649,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21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고종즉위년 1863,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22 숙종빈전·혼전도감의궤, 경종즉위년 1720,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23 경종빈전·혼전도감의궤, 영조즉위년 1724,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며 이후의 의주에서는 수관 대신 익선관이 등장한다. 영조²⁴는 습의주에 대대가 옥대로 바뀌었고, 망건을 조라대신 아청사로, 떡목은 청라대신 모단으로 안은 훈초에서 홍광직으로, 대는 자초에서 모단으로 바뀌었다. 리가 화로, 악수도 떡목과 같이 직물의 종류가 바뀌었다. 소렴교·대렴교는 백초에서 백방주로, 패옥은 ‘패옥화어채단’이라 하여 채단에 그림으로 그려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빈전삼방의궤」는 영조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기로 염습의대에 관한 내용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습의대로는 대대·옥대 또는 가옥대, 곤룡포·저사답호·철릭·라단령·중치막·장의·백초 과두·백초 한삼 또는 한삼·바지(把持)나 고 또는 단고·말의 순서로, 제구는 망건, 수관 또는 익선관·떡목·충이·화·갑정·금모보새로 되어 있으며 영조이전의 기록에는 바지 2착에 친의 류인 한삼1, 저고리류인 과두가 1착씩 1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모두 백초를 사용하였다. 영조 이후의 기록에는 바지를 고와 단고로 분류하였고 의주에는 대대나 옥대 하나씩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병용되었으며 리와 화도 마찬가지이다.

소렴의대는 강사포 일습·저사 한삼·단의 또는 답호·철릭·바지·과두·원유관·적석·적말로 되어 있으며, 강사포는 평일소어라 하여 평상시 착용하던 것을 사용하였으며, 영조이전 기록에는 원유관의 표기만으로 강사포의 사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바지 3착, 과두 3착이 각각 1착씩 1칭으로 3작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과두가 저고리류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므로 왕의 염습의대에 사용된 과두는 저고리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렴의대는 면복 일습과 평천관·적석으로 되어 있으며, 영조 이전에는 염의 90칭이라 하여 복식명이나 직물명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나, 영조 이후에는 많은 기록들이 생략되고 간략해 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4.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일기체 형식의 기록물로 편찬물이 아닌 국정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말하여지는 바와 왕에게 올려진 문자로 된 문건을 일체의 가감없이 보고 들은 것으로, 편찬자의 사관이나 그에 따라 사료의 취사선택이 가해진 실록과는 달리 오직 객관적 자세에서의 사실 기록만으로 이루어 졌으며 실록에 누락된 기록들이 실려져 있다.²⁵ 인조 1년(1623)부터

24 영조빈전·훈전도감위궤, 정조즉위년 1776,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25 정만조 외, 2003,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방안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p.19.

고종 31년(1894)까지 270여년분이 현존하는데, 그 가치는 『조선왕조실록』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⁶

왕의 염습의대는 경종·영조·정조의 의대가 확인되었으며, 영조와 정조의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일치하나, 경종은 『승정원일기』에만 그 기록이 보인다. 경종의 염습의대에 관한 연구는 김인숙에 의해 재궁의대만 선행 연구되었다.

경종 염습의대와 관련하여 습의대와 재궁의대가 기록되어 있다.(표6) 습의대는 용을 니은(泥銀)한 대와 룡곤(곤룡포)·답호(반비)·초록단장의(障衣)·중의(자적·보라·초록·유록, 중치막)·다홍의·단삼(백릉), 관은 익선관(翼善冠)이며 리(纁, 망건)·화(皂毛羅)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⁷ 재궁의대는 곤룡포·중치막·협수·배자·(겹)도포·의·동의(冬衣)·저고리·고로다홍곤룡포 2착, 진홍운문단 곤룡포·흑색운문단용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편복포류로 그 중에서도 중치막이 가장 많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 기록된 영조·정조·순조의 염습의대에 보이던 장의의 기록은 1착도 없으며, 대신 저고리의 기록이 20착이나 된다. 그렇다면 장의를 문효세자 이후의 『빈전도감의궤』에는 과두 대용 장의²⁸라고 하였고, 영조실록 습의대에는 곤룡포·답호·장의 2착·중치막 4착·단고 2착·대고로 쓰여 있으며, 과두나 한삼, 즉 저고리류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저고리라고 볼 수 있으며, 장의는 저고리보다는 조금 길고 중치막보다는 약간 짧은 형태²⁹로 추측되며 저고리로 또는 포의 이의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문헌적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V. 역대 왕의 염습의대 종류

조선시대에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이래 1907년 일제의 강압으로 순종이 고종으로부터 황제 위를 선위 받아 즉위할 때까지 27인의 왕³⁰이 있었는데, 6대 단종·

26 김인숙, 1981, 조선왕조 왕의 소령, 대령, 당재궁 의대에 관한 연구, 복식 5호, 한국복식학회.

27 『承政院日記』, 경종 4년 8월 25일(을미), 제 572책/제 31책 (61/69)

置衣櫛於北夾次鋪多紅廣織帶 帶泥銀劃玉龍 次鋪龍袞 當胸背 織成銀龍 次鋪褶護. 則半臂 蓋無袖者 次鋪草綠段障衣 次鋪紫的寶羅草綠榆綠中衣. 諺所謂中赤莫也. 次鋪多紅衣 次鋪白綾單衫 凡九稱.冠則翼善冠 樣似朝臣所着紗帽 而除竹網 糊紙作殼 裹以皂毛羅 纁亦皂毛羅 纁則網巾 以泥銀 劃作團玉圈 靴亦皂毛羅 以藍段爲清

28 박성실, 1992, 앞의 논문, p.103.

29 이은주는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에서 소매가 좁고 옆선이 길게 트인 긴 저고리형의 옷에 대해 “소창의”로 보고, 예서에 장유·장의·동의·이의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습용 소창의는 가끔 저고리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표 6. 『승정원일기』 중 경종의 재궁의대

의차	의명	의차	의명	의차	의명
玉色大段	中赤莫	粉紅稀文綾	背子	藍廣織	道袍
草綠開其紬	中赤莫	草綠大段	背子	草綠大段	背子 三
多紅廣織	狹袖	紫의綾	中赤莫	玉色綾	赤古里
松花色葡萄文大段	中赤莫	寶羅大段	中赤莫	玉色段	背子
石梁色稀文廣織	中赤莫	藍方紗紬	中赤莫三	藍方紬	赤古里
松花色綾	中赤莫	草綠大段	中赤莫	藍開其紬	中赤莫
朱黃大段	赤古里	玉色大段	赤古里	松花色縷飛	冬衣
藍開其段	中赤莫	藍廣織	道袍 七	多紅吐紬	直領 [內拱多紅吐紬]
多紅大段	背子 四	玉色花絲紬	中赤莫	藍廣織	道袍 二
多紅縷飛	背子,	松花色大段	背子二	草綠方紗紬	中赤莫
松花色大段	赤古里 二	玉色合絲紬	赤古里	多紅廣織	道袍
藍宮綃	道袍	松花色花方紬	背子	玉色龍紋緞	中赤莫
朱黃大段	中赤莫	玉色方紗紬	中赤莫二	草綠方紗紬	中赤莫
松花色賞賜緞	中赤莫	玉色花方紬	中赤莫	玉色有紋緞	中赤莫
玉色方紗紬	中赤莫	藍花紡絲	中赤莫	松花色大段	中赤莫
草綠雲文大段	中赤莫	藍方紗紬	中赤莫	藍大段	赤古里
多紅廣織	道袍 [內拱藍廣織]	紫의吐紬	道袍	藍大段	赤古里
鴉靑	道袍	鶴羅	道袍二	藍紡紗紬	中赤莫
玉色方紗紬	中赤莫	多紅大段	道袍	草綠雲文大段	赤古里
寶羅大段	背子 二	寶羅龍文緞	中赤莫	藍方紗紬	道袍
玉色方紗紬	赤古里	藍方紗紬	中赤莫	玉色大段	中赤莫
玉色大段	中赤莫	黑色雲文緞	龍袍	松花色方紗紬	赤古里
藍花絲紬	中赤莫 二	藍方紬	背子	多紅則烏紗	縷飛袴 二
藍方紗紬	中赤莫	玉色大段	中赤莫	藍方紗紬	道袍 五
草綠方紗紬	中赤莫	錦紬	道袍	藍方紗紬	背子
玉色方紗紬	中赤莫	藍有文緞	赤古里	方紗紬	道袍
藍方紗紬	中赤莫	玉色開其紬	中赤莫	多紅宮綃	袂道袍
藍雲文緞	中赤莫	紫의花方紬	中赤莫	玉色花方紬	中赤莫 三
多紅	袞龍袍 二	甫羅大段	背子	草綠絲綃	赤古里
玉色無文段	中赤莫	朱黃	中赤莫	眞紅雲文段	袞龍袍 [無胸排]
松花色	背子	粉紅大段	背子	寶綃	中赤莫
草綠雲文緞	背子	藍綾	中赤莫	多紅宮綃	道袍

의차	의명	의차	의명	의차	의명
松花色方紗紬	背子	多紅賞賜緞	赤古里	藍方紗紬	中赤莫 二
多紅宋錦段	中赤莫	藍方紗紬	衣	多紅大段	道袍
豆綠宮綃	褙子	粉紅稀文大段	背子	松花色	中赤莫
松花色廣織	狹袖	藍方紗紬袂	道袍	藍宮綃	中赤莫
草綠大段	赤古里	玉色綾	赤古里 二	松花色花絲紬	中赤莫
多紅大段	背子	草綠縷飛	皆子	藍方紗紬	袂道袍
朱黃大段	背子	玉色方紗紬	中赤莫	寶羅	赤古里
玉色綾	中赤莫	松花色大段	中赤莫	方紗紬	袂道袍
多紅賞賜緞	赤古里	寶羅大段	赤古里	藍方紗紬	道袍
玉色花方紬	中赤莫 二	草綠大段	中赤莫 六		

10대 연산군·15대 광해군을 제외한 24인의 왕에 대한 국상이 치루어 졌으나, 왕의 염습의대에 관한 기록이 왕조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염습의대에 관한 문헌기록이 현전하는 왕은 임진왜란 이후 인조부터 순종까지 12인이며, 2005년 7월 16일에 타계한 마지막 황세손 이구의 염습의대를 실물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인조·효종·현종·숙종의 염습의대

인조·효종·현종·숙종의 염습의대는 『빈전도감의궤』에만 그 기록이 전하며, 인조의 경우 왕의 염습의대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며 현전하는 『빈전도감의궤』 중 가장 상세하며, 당의의 기록은 수례지의(綏禮之衣)³¹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목욕의대는 명 의(상의)단의로, 습의대는 한 의(汗衣)1·저사답호·철릭1·라단령·백초 과두·백초 한삼·백초 바지(把持)로 되어 있으며, 제구로는 수관·대대·떡목·망건·충이·말·리·화자·갑정·가옥대로 기록되어 있다. 소렴의대는 산의 19칭 외비의대라고 되어 있어 새로 장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저사한삼·단의·철릭·겹철릭·바지·과두·원유관으로 되어 있으며, 원유관의 기록으로 강사포의 사용을 알 수 있다. 대렴의대는 한의·염의·면복·평천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필단명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직물도 염습의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31 박성실, 1992, 앞의 논문, p.92.

“또한 왕실의 『빈전도감의궤』에 의하면 1600년의 의인왕후 염습의대 중에는 선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포와 철릭이 각각 1점씩 포함되어 있다.”

2. 경종의 염습의대

경종의 염습의대는 『빈전도감의궤』와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며, 의궤의 내용은 전대의 기록과 다를 것이 없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전술한 바와 같다.

3. 영조·정조·순조의 염습의대

영조·정조·순조의 염습의대는 『조선왕조실록』과 『빈전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으며, 실록에는 습의대부터 재궁의대까지 복식의 종류·의색·직물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의궤에는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어 실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빈전도감의궤』 의주에는 대대가 옥대로, 수관이 익선관으로, 리가 화로 바뀐 것 이외에는 『국조오례의』의 기록과 동일하다. 「삼방의궤」의 습의대는 익선관·옥대·곤룡포·답호·철릭·원령·한삼·고·말, 제구로는 망건·충이·떡목·악수·화·갑정·금모·보쇄로 되어 있으며, 정조의 습의대부터는 철릭 대신 중치막이 대용된다. 소림의대는 강사포 일습에 염의 19칭, 또한 『국조상례보편』에 규정된 환질·마승·수질·요질·교대의 기록은 영조의 염습의대에서만 확인되며, 답호·철릭·원유관·적석·적말은 정조이후 기록되어 있다. 대림의대는 평천관과 면복 일습, 염의 90칭 내비라고 되어 있으며 대홍공단에 은으로 도끼문양을 그린 관의의 기록도 보인다.

4. 헌종·철종의 염습의대

헌종·철종의 염습의대는 『빈전도감의궤』에 그 기록이 있다. 습의대는 옥대·곤룡포·답호·중치막·장의·한의·고·단고·말, 제구로는 망건·익선관·화·갑정·충이·떡목·악수·금모보쇄의 기록이 있으며 곤룡포·답호·중치막이 일습으로 장의·한의(汗衣)·고·단고가 각각 일습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장의는 과두와 같은 저고리류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모두 1착 씌만 사용되어 매우 간소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소림의대는 전대의 기록과 동일하게 강사포 일습·답호·철릭·원유관·적석으로, 대림의대도 평천관·적석·면복 일습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직물명이나 의차의 기록은 생략되었다.

5. 고종·순종의 염습의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편찬시기가 일제강점기이고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이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사학계에서는 왜곡된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왕의 염습의대를 고찰할 수 있는 실증적 문헌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종은 소렴의대와 대렴의대의 기록이 있는데 소렴의대는 철종의 「삼방의궤」 소렴의대의 기록과 동일하며 강사포 일습·패옥·아청답호·다홍철릭·원유관·적말·적석으로, 이명은 『국상빈전 수요품불기』 중 소렴의대에 관한 내용이 실록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였으며,³² 대렴의대는 황운문단룡포·군복·쾌자·주의·강사포·[백갑사삼·다홍갑사삼·대대·후수(金環畫本)·폐슬1·옥대1(紅貢緞畫本)·옥규1·패옥1]·유청운문단금일·자지별문단침·편의·각색 공단·고단(庫緞)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³³ 면복의 기록은 없다.

순종은 소렴의대만 기록되어 있는데 황포·저사답호·철릭·라단령·답호·철릭·홍저사원령·답호1·백초 고2로 답호와 철릭이 각각 1착과 저고리류가 누락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사포 대신 황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광무원년(1897)년 제정된 『대한예전』에 의한 황제의 복색임을 알 수 있다.

6. 황세손 이구의 염습의대

2005년 7월 16일 타계한 황세손 이구(李玖)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2자로 태어났으나 왕조의 몰락으로 비운의 삶을 영위하였으며, 향년 75세로 자신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일본 궁터에 세워진 한 호텔에서 타계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500여년간 조선이란 국호로 존속시키면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왕조의 최후로는 너무도 국가적·국민적 배려와 관



그림 1. 곤룡포 제작 현장

심이 없었으므로 박성실교수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면 생전에 입어야 했을 곤룡포 일습을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왕의 염습의대를 기준하여 고증 제작하여

32 이명은, 2003, 『궁중불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도, p.86.

33 『純宗實錄附錄』 卷之 10 1919년 1월 26일

2005년 7월 21일 빈소가 차려진 낙선재에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기증하였다.(그림1)

염습의대와 제구는 문헌의 기록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진 것과 현행 수의에 적합하도록 변형시켜 제작된 것도 있어 현행 수의문화에 바람직한 제시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하루라는 급박한 시간으로 염습의대의 표의인 상복(上服)으로는 곤룡포만을 제작할 수 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그림2~9).

〈염습의대〉



그림 2. 곤룡포



그림 3. 광수주의



그림 4. 주의



그림 5. 저고리·한삼



그림 6. 고·단고·말

〈염습제구〉



그림 7. 베개·먹묵·오낭·악수



그림 8. 지요·천금·소렴금과 대렴금



그림 9. 모 - 질·새

Ⅵ.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휼시에 왕에게 착장되었던 염습의대를 조선전기 문헌인 『세종오례의』 『국조오례의』와 조선후기 문헌인 『조선왕조실록』·『빈전도감의궤』·『승정원일기』를 통해서 비교·고찰하여 각 문헌에 기록된 왕의 염습의대를 의식절차에 따라 복식의 종류를 알아 보았고,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내용이 얼마나 잘 준용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아울러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변화된 왕의 염습의대를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염습의대는 『국조오례의』에 규정대로 염습의대의 표의인 상복은 곤룡포·강사포·면복이 변함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왕이라는 최고의 신분에 부합되게 사후에도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복(上服) 아래 입는 이의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이의류는 편복포류로서 대부·사서인과 같은 복식을 사용하고 평시에도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포제 중에서 액주름과 심의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의 전통이 현대화에 따른 핵가족화라는 명분 하에 약소화되고 간소화되는 현행 상례 제도에 격조 높은 왕실 전통의 수의문화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서례

국조상례보편

국조상례보편도설

국역조선왕조실록

빈전(혼전)도감의궤

승정원일기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 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

김인숙, 1981, 조선왕조 왕의 소림, 대림, 당재궁의대에 관한 연구, 복식 5호, 한국복식학회.

김진아, 2001, 전통수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도.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송미경, 1989,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순남숙, 2000, 다산의 염습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안현주, 2003, 조선시대 즉위의례 연구 - 고종황제 등극의례 재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도.

유관순, 1990,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 조선조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이명은, 2003, 『궁중불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 장서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도.

정만조 외, 2003,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정옥자, 2004,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

정종수, 1994, 조선초기 상장의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조효순, 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경기도.

한영우, 2005,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경기도.

A Study on the Shroud of the King in the Joseon Dynasty.

Mal-sook Jung

Lecturer, Departmen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As humans hav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costumes since they emerged, the costumes worn by members in society played a role in showing statuses, ethnics, and cultures, as a criterion, as well as in protecting bodie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had rigidly hierarchical structures, costumes themselves were identified with the positions in society. As the ruling principle of the dynasty was based on Confucianism, the king as the supreme status wore *Yomseup-uidae*(斂襲衣櫛) as a final formal dress representing the supreme authority and respects to the next king. The Joseon dynasty set up the royal rule of *Olye*(五禮) different from the rule for '*daebu-saseu-in*.'(大夫·士庶人) The dynasty followed this rule in a general royal ceremony. *Hyunglye*(凶禮) which belonged to *olye*, was set up for funeral ceremonies and was first recorded in 『*Sejong-olye-ui*』(世宗五禮儀). After published in 『*Sejong-olye-ui*』 *hyunglye* was finalized in 『*Gukjo-olye-ui*』(國朝五禮儀) and was observe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Yomseup-uidae was used in the procedure of king's funeral, *hyunglye*. *Uidae*(衣櫛) means the formal dress worn by royal family, and *Yomseup-uidae* is referred to as a shroud, clothes for the dead body, which were buried with the corpse.

Considering all of these recording, *Yomseup-uidae* for the kings recorded in 『*Gukjo-olye-ui*』 was observe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ules for *Sangbok*(上服)-clothes at the top- was observed strictly as follows: *golyongpo* at the time for *Seup*(襲) *gangsapo* at the time for *Soryom*(小斂) and *myonbok* at the time for *Daeryom*(大斂). However, at the end of the dynasty, some rules were changed in the record. For example, *sangbok* in the period of King *Gojong* was recorded as *whangrongpo*, not as *myonbok*. Moreover, one set of *dan-lyung*, *dapho*, and *cheolik* in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was changed into one set of *dan-lyung*, *dapho*, *jungcheemak*. Also, *san-ui* at the time of *Soryom* and *Daeryom* was changed into a variety of *pyonbok*(便服).

Consequently, *Yomseup-uidae* for the kings of Joseon includes *golyongpo*, *gansapo*, and *myongbok* as the top coats, which *daebu* or *saseo-in* could not wear as their clothes. Such royal top coats represent supreme authorities and dignities even after the kings' death.

Keywords : Shroud, King's Shroud, Seup-uidae(襲衣褂), Soryom-uidae(小斂衣褂), Daeryom-uidae(大斂衣褂)

개인 소장 근·현대 어린이 복식품에 관한 소고(小考)[†]

지수현*

■ 논문요약

본 연구는 전통 자수품을 수집해 온 민연화(1954~)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수복식품들 가운데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어린이 복식품 일부를 소개하고자 고안되었다. 수집해 온 250여점의 복식품들 가운데 어린이 복식품은 약 20여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고찰 대상이 되었던 소장품은 전복 2점, 저고리 3점, 마고자 1점, 풍차바지 6점, 굴레 3점으로 총 15점이다. 연구의 목적은 개인 소장가가 애호적 입장에서 수집한 전세 유물들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전세 유물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유물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해 볼 수 있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어린이 복식에 대한 연구 논문, 전시 도록을 포함한 출간 서적 및 사진 자료를 가운데 시대가 명시된 동일 품목들과의 조형적 비교를 소재, 구성, 바느질 방법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소장자의 유물은 1920년대에서 늦게는 1970년대 말 즈음에 이르는 시기의 유물들로 보인다. 어린이 전복[No.1] [No.2]의 경우 19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인 연두색 전복의 양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수돌띠 색동저고리[No.3]과 색동감으로 쏘을 한 2점의 저고리[No.4~5]는 1920년대 이후 보이는 양식이다. 색동마고자[No.6]은 20세기 영왕의 아들 구의 돌 생신 의대 중 남송색동부금동배자라고 하는 왕실 양식과 유사하나 바느질은 매우 거칠었다. 풍차바지 6점[No.7~11]은 모두 동일한 치수로 폴장이를 위해 한 곳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말 경 등장한 깨끼 바느질에 적합한 소재로 유통되던 '깎깎이'라는 소재를 안감으로 한 초록풍차바지 [No.11]을 제외하고 안감은 모두 목면 계통이다. 굴레 3점은 자수문양, 정수리 장식 등이 1920년대 전후의 유물에서 보이는 유물들의 양식들과 유사하였다.[No.13~15]

개인 수집가의 소장품에 대한 편년을 추정하는 기준을 실물 자료가 아닌 박물관 도록이나 연구 문헌에 게시된 사진에 의거한 만큼 후속 고찰을 통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사 연구의 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어린이 복식 연구에 실물 자료로써 의미 있는 개인 소장품을 소개한 것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주제어 : 어린이 복식, 자수 복식,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굴레

[†] 본 연구는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부교수, E-mail : kjilsim@gmail.com

I. 서론

본 연구는 여흥 민씨 집성촌이었던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유소년시기를 이천에서 보낸 후 서울 강남 지역에서 대기업 임원의 아내로 20여년을 거주하며, 자수품을 애호, 수집해 온 민연화(1954~) 개인의 소장품을 실견(實見)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고안 되었다. 스스로를 비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그녀는 1990년대 말경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소장용으로 자수품들을 수집하였다. 이들 품목들은 활옷, 흥배, 보자기, 주머니, 노리개, 열쇠패, 신발, 관모, 두식과 생활 민속공예품 그리고 어린이 복식 등 전통 자수로 장식된 복식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수는 약 250여 점에 이른다. 이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보자기가 50여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복식품이 20여점에 이르고 있다.

소장자인 민연화님은 경기도 여주에서 초등학교 교사이신 아버지 민영복(1932~1980)과 안성을 본관으로 하는 어머니 이재순(1934~)의 장녀로 출생, 파평 윤씨 외조모 윤순기(1910년대 출생~1980년대말 작고)님께서 거주하는 이천 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년기를 보냈다. 이후로도 외조모가 1980년대 후반 작고하기 전까지 서울과 이천을 오가며 외가를 다녔다고 한다. 현재는 사랑채만 남아있으나 본래 외가는 안채와 사랑채와 넓은 마당과 일꾼들이 사는 초가로 된 행랑채까지 있었던 조선 후기 반가의 전통 한옥으로 기억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강남구에 거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그녀는 40대 중반부터 조선 반가 부녀들의 생활공간을 간직한 어린 시절의 외갓집에 대한 향수로 20여 년간 자수품을 수집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누적된 세월 동안 희미해진 기억으로 인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입수 경위나 최초 소장자의 신상 등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언을 명확히 남겨놓은 바가 없었다. 먼저 소장자로부터 제공받은 20여점의 어린이 복식품에 대한 정보는 1990년대 강남에서 전남 광양으로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이사를 내려간 지인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낡고 오랜 자수 유물을 좋아하는 민연화님에게 광양 인근에서 돌장이가 입었음직한 복식품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장품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냈고, 유물 사진들을 보고 구매 대금을 송금한 뒤 소포나 택배로 받았다는 것이 유물 입수 경위에 대한 전부이다. 실제 유물을 소장하고 있던 광양의 개인이 골동품을 거래하는 업자였는지, 가정에서 소장해 온 것인지, 착용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나 기억이 없어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물이 제작되고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전라남도 광양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소장가가 애호적 입장에서 수집한 전세 유물들에 대한 사료적 가치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유물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가급적 편

년의 대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 복식에 대한 연구 논고, 전시 도록을 포함하여 출간 서적 및 사진 자료에 나타난 비교적 시대를 알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 복식들을 찾아 조형적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고찰 대상이 되고 있는 어린이 복식품은 전복 2점, 저고리 3점, 마고자 1점, 풍차바지 6점, 굴레 3점으로 총 15점이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1>에서 <표 4>와 같다.

표 1. 전복

순번	성별	명칭	사진	치수(cm)
1	남	진분홍색 전복		길이 53 폭 32.5 진동 15
2	남	연분홍색 전복		길이 52 폭 34 진동 15

표 2. 저고리, 마고자

순번	성별	명칭	사진	치수(cm)
3	여	색동수돌피저고리		길이 38 화장 40 폭 32 진동 13 수구 9.5
4	여	자주색동저고리		길이 28 화장 29 폭 28 진동 12.5 수구 8.5
5	여	초록색동저고리		길이 27.5 화장 39 폭 31 진동 13.5 수구 8.5
6	남	연두색 색동마고자		길이 26 화장 39 폭 32 진동 13 수구 8.5

표 3. 풍차바지

순번	성별	명칭	사진	치수(cm)
7	남	연두색풍차바지		총길이 44.5 허리둘레 52×5.5 바지통 16.5 부리 11.5
8	남	백색풍차바지		총길이 45 허리둘레 47.5×5 바지통 16.5 부리 11.5
9	남	자주색풍차바지		총길이 46 허리둘레 50×5 바지통 17 부리 11
10	남	풀색풍차바지		총길이 46 허리둘레 45×5 바지통 16 부리 11
11	남	초록풍차바지		총길이 48 허리둘레 47×5 바지통 17 부리 12
12	남	옥색풍차바지		총길이 46 허리둘레 47.5×5 바지통 16 부리 9.5

표 4. 굴레

순번	성별	명칭	사진	치수(cm)
13	남녀	굴레		둘레 35 높이 26 11가닥
14	남녀	굴레		둘레 32 높이 23 13가닥
15	남녀	굴레		둘레 35 높이 25 11가닥

II. 선행연구 고찰

1. 문헌 고찰

전통 어린이 복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이 2000년에 개최한 학술발표회와 특별전시회의 주제를 ‘어린이 옷’으로 정하여 『한국전통 어린이복식』을 출간하기 전까지 독립적인 주제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박성실(2000)은 그녀의 논고¹에서 첫째는 전통 돌 옷 차림이 현재까지도 전래되고 있으며, 둘째, 명절이나 경사시에 입히는 의례복도 돌 옷 차림과 크게 구성이 다르지 않다는 점, 셋째로는 1900년대 초 중반으로 집중된 복식 자료들의 시대적 한계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2000년대 이전 전통적인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적 고찰 대상이 되어 풍속지(風俗誌)나 보고서를 통해 출산의례나, 산속(産俗), 통과 의례 등을 다뤘은 것을 볼 수 있다.² 『한국전통 어린이복식』을 통해 개인 및 국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 복식 유물들에 대한 사료적 가치와 독립된 연구로의 의미가 부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영숙(1987)은 조선 후기 왕실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복식 유물들을 궁중에서 쓰인 문헌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는 도서³를 간행한다. 이는 민속품으로서의 어린이 복식 유물을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 특히 2002년에 증보판으로 간행된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은 19세기 조선의 왕실과 황실의 왕자나 황손 아가씨 복식들을 언급하고 있는 『발기』에 등장하는 용어를 도판을 통해 실물과 대조해 볼 수 있어서 귀중한 사료로써 기능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 왕실을 비롯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한제국 황실(1897-1910)의 어린이 복식들은 전대(前代) 왕조인 조선의 상류 문화를 이루는 왕실과 사대부 복식 양식의 전범(典範)이 되어 민간 어린이 복식들에게 양식적 기

1 박성실, 2000, 전통 아가씨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편, 경기도, pp.135-176.

2 고부자, 1977, 제주도의 육아속, 국제대학논총, 제4~5집;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 17책(의생활편); 고부자, 1988, 제주도민의 출생의례복과 그에 나타난 의식, 문화재, 21호; 조희진, 1998, 첫돌 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 의례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경상북도; 추은희, 2000, 출생의례복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3 김영숙, 1987, 조선조 말기 왕실복식, 민족문화문고회, 이후 여러 증보판들이 나온 바 있다.

4 전 영광기념사업회 김창규 이사장은 김영숙 선생이 이미 1987년에 민족문화문고회를 통해 발간했던 ‘조선조말기왕실복식’의 사료적, 외교적, 정치적 가치를 2002년 궁중유물전시관이 간행한 증보판 ‘조선 후기 궁중복식’의 저자 간행사 앞 글에서 밝히고 있다 - 김영숙 선생의 역작인 이 원색도감의 역할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략) (한·일) 양국 수뇌부까지 동원된 5년에 걸친 유품 반환 교섭과정에서 이 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치·외교적으로도 크게 공헌했다는 점은 이 저서가 갖는 또 하나의 큰 가치가 되는 것이다.

준이 되고 있다.

〈표 5〉는 영왕(永王)의 돌 옷이 기록된 1898년 「무술 구월 아기시 돌 생신 의복발기」와 1932년 12월 「의대 목록」에 기록된 구(玖) 왕자의 돌 옷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⁵ 19세기 말 왕의 돌 복식 일습이 바지, 저고리, 배자 위에 주의, 쾌자, 사규삼으로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쾌자(快子)는 민간에서의 전복(戰服)을 지칭하고 동의복은 저고리의 별칭

표 5. 왕실 돌옷

영왕			착장자	구 왕자(英王 2男)		
1898년 9월			연도	1932년 12월		
명칭	색	옷감	종류	명칭	색	옷감
				공정책		
복건	아청	인문사/옥판/석옹황	쓰개류	복건	아청	별문단/부금
				용포	자적	도류단
				내작	홍	운문숙사
사규삼	남송	숙갑사	포류	사규삼	초록	대화단/부금
쾌자	양남	별문갑사		창의내작	다홍	대화단
잔누비주의	분홍	장원주		쾌자	남	자손수/부금
				주의	희야	대화단
				접주의	분홍	별문숙사
			조끼류	조끼	남	자손수/부금
잔누비배자	양남	숙갑사	배자류	동배자	남송	색동/부금
잔누비동의복	분홍	삼팔주	저고리류	동의대	분홍	별문우이중
동다리잔누비동의복	두록	장원주		누비동의대	남송길	우이중
민동의복	옥색	수화주		-	다홍동	-
잔누비바지	백	삼팔주	바지류	바지	백	숙수
잔누비바지	백	서양사		누비바지	백	별문우이중
쟁민바지	백	삼팔주				
-	-	-	규	규	-	백옥
				옥대	-	백옥
			대류	술띠	분홍	-
				전대	다홍	대화단/부금
				요대	남	숙수
누비천의	자적	수화주	기타	태사혜	-	-
행진	-	저포		허자(화자)	-	-
오목이	-	-		행진	백	세저
				수족진	-	-
				수낭	다홍	-

5 조효숙·최은수, 2007, 근대 아동한복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63-73쪽.

이며, 왕실 돌 옷으로 민간에서 유행하던 색동옷은 보이지 않는다. 20세기 발기 가운데 병진년(1916) 사월 초파일 왕자 아기시 의복 중 색동저고리는 ‘옥색 길, 홍주’로 기록되고 있어 동다리 저고리의 별칭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왕손복 유물이나 돌옷 기록에서는 동다리 저고리와 동다리 주의를 색동옷으로 취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⁶ 한편 쓰개는 앞 중심에 옥판을 단 복건이 기록되었다. 동일한 형태의 쓰개가 왕실용은 고궁박물관에, 반가용은 경운박물관에 전시된 풍양조씨 집안의 유물에서 볼 수 있다. 패자나 배자는 주로 밝은 남색인 양남색으로 하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품 중 영왕가 유물 기증품에는 남송 색동부금 동배자가 있다. 반가에서 말하는 색동 등걸이나 민가의 마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영왕과 왕자 구의 부자간의 돌 복식은 시대적으로 30여년의 차이가 있으며, 왕과 왕자의 의대 목록에서 1932년 왕자 구의 옷에 색동과 족기[조끼]가 나타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지윤영(2001)⁷은 광복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촬영된 첫돌 복식 사진 분석을 통해 통과례 복식으로 일습화된 양식이 왕실과 황실, 그리고 이들을 본 받은 사대부 반가의 기본 돌복식이 되어 변천해 왔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5년 경운박물관에서 진행된 『옛 어린이 옷, 그 소중한 어여쁨』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전시에 참여한 안동 김씨, 여흥민씨, 임천조씨, 파평 윤씨의 네 집안 아동복 중에는 돌옷이 수 점 있었다. 민저고리에 풍차바지, 분홍색 민두루마기나 색동소매를 단 오방장두루마기, 전복 등이 그것이다. 20세기 전반기의 이들 양반 집안 어린이 옷 유물과 근대 어린이옷 사진자료, 조선말기 왕실의 어린이 복식 유물 및 『발기』에 기록된 왕실 복식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조효숙 외(2007)의 연구⁹에서 조선의 대표적인 세도가라고 할 수 있는 양반가에서 의복을 갖춰입힐 경우 돌복으로 대부분 민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복건을 씌웠으며 복건에 커다란 옥판을 달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구성은 조선의 왕실 풍습과 동일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2년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 반가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이 간행한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에서는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이르는, 비교적 정확한 편년을 제시하고 있는 복식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덕온 공주는 해평 윤씨 윤의선(1823~1887)에게 하가하여 후사 없이 떠났으므로 같은 일가에서 윤용구

6 박성실, 2000, 앞의 책, pp.142~143.

7 Yoon-Young Ji, Na-Young Hong, 2001, Changes in the Ceremonial Dresses for Children's First Birthday Since 194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9), pp.1681-1692. (* 지윤영은 현재 연구자 본인의 이전 이름임.)

8 2003년 경기여고 내 경운박물관이 설립되어 개관 2주년에 거행된 전시로 여러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 복식과 개인소장품들을 기증받아 어린이 복식품으로만 구성된 전시로 근·현대 상류층의 아동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여아 복식 유물은 매우 드물었다.

9 조효숙·최은수, 2007, 앞 책, p.66 재인용.

(1853~1939)가 양자로 들게 되었다. 어린이 복식품은 아니나 1968년에 그의 손녀 윤백영이 자신이 어머니 회갑을 맞이하여 입었던 색등거리와 1930년대에 윤백영의 장남이 회갑을 맞이하였을 때 “노래자(老萊子)” 풍습¹⁰을 시연케 하고자 그녀가 손수 지은 복식 일습 [색등거리, 굴레, 허리띠, 버선]이 30여년의 시차를 두고 당시의 어린이 복식의 양식을 살피볼 수 있게 한다. 이경자 외 2인(2003)이 출간한 『우리옷과 장신구』¹¹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박물관과 담인복식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고리, 전복, 두루마기, 배자, 풍차바지, 토수 등을 볼 수 있다. 한국자수박물관이 편찬한 『이렇게 좋은 자수』¹²는 어린이 복식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수 장식들을 감상할 수 있는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끼, 배자, 저고리, 굴레를 비롯하여 주머니들과 같은 소품들이 그것이다.¹³ 이 외에 어린이 복식 유물들을 살필 수 있는 도판들은 국·공·사립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들이 사진으로나마 고찰해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 복식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활동들은 이상의 도록들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 덕분에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김정아(2011)는 그녀의 박사논문¹⁴에서 개항기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 시기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갑신정변, 한일병합, 독립운동,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각각 1884~1909년, 1910~1918년, 1919~1936년, 1937~1945년으로 정하여 개항 이후 아동복식의 변천을 남아와 여아로 살펴보았다. 19세기 이후 우리나라 아동 복식의 변화에 있어서 서구 문화의 유입과 일본의 복식문화가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이는 현대 아동복식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와 시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조선 시대 어린이 복식 유물에 관한 독립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서 가장 최근의 연구 중 하나는 이명은(2018)의 연구¹⁵가 있다. 그녀는 현재까지 출토된 조선 시대 복식 중에서 어린이 출토복식의 현황을 살피고 이들의 특징과 복식사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14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이르는 40점의 출토복식이 고찰 대상이었다. 6점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례지의(綈禮之衣)로 출토된 것이었으며 첫돌 복식과 같은 일습 개념의 통과의례 복식으로 분류된 대상은 없었다. 다만, 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남자묘에서 출토된 액주음포와 17세기 전반

10 중국 초(楚)나라의 현인(賢人) 노래자(老萊子)가 70세의 나이에도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어린이에 같은 장난을 하여서 부모가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하였던 것에서 유래한 풍습. (해당 도록 주)

11 이경자·홍나영·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서울.

12 허동화(2001), 이렇게 좋은 자수, 한국자수박물관. 1978년 국문판 『한국의 자수』(삼성출판사), 1987년 일문판 『韓國의 古刺繡』에 이어 이미 출간된 두 권의 내용을 증보하여 국영문판으로 제작한 도록.

13 이 도록에 실리지 않은 어린이 자수 복식품들이 전통 어린이복식을 주제로 한 전시 도록에 실리기도 하는데 『옛 어린이 옷』(2005)에 허동화 관장이 수집한 자수 색동저고리가 보인다. 그가 수집한 유물 5천여 점은 2020년 개관하는 서울공예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14 김정아, 2011,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논문개요.

15 이명은, 2018,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 유물에 관한 고찰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복식 제39호, pp.37-62.

해평윤씨 소년미라 발굴 당시 소년이 착용하고 있던 중치막이 근대의 오방장두루마기와 같이 색 조합을 하여 만든 옷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유물 고찰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 소장가의 전복, 저고리, 마고자, 풍차바지, 굴레의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 소개된 유물의 도판과 관련 사진들을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어린이 복식품들의 편년을 추정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진 자료는 소장처와 편년이 명시된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사진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전복

전복은 조선시대 무관(武官) 입던 군복의 일종으로 소매와 셔츠 없고 양 옆 아랫부분과 등술기를 허리에서부터 튼 반비류의 옷이라는 게 특징이다. 전복과 같은 구조의 옷으로 답호와 작자, 더그레가 있다. 그러나 전복과 답호는 다른 옷이라고도 하는데¹⁶ 이는 고종21년(1884)의 갑신 의제 개혁에서 모든 광수의(廣袖衣)를 폐지하고 착수의(窄袖衣)·전복·사대(絲帶)를 문무 관리들의 평상복으로 착용케 하였고 다시 갑오경장 때에 통상예복으로 주의와 답호를 입도록 하였기에 전복과 답호를 같은 옷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답호는 시기가 조선 전기부터 명칭이 등장하고 전복은 이후의 시기에 등장한 용어로 본다. 왕실에서는 꽤 자라는 별도의 용어로 달리 부르는 것을 발기에서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전복 자료들은 조선조 말기 이후의 전복 유물들이다. 이 시기 성인용 전복은 홀과 겹이 모두 남아 있고 구군복으로써의 전복에 붉은 안감을 받치고 같은 색의 광대(廣帶)를 매고 전대(纏帶·戰帶)를 묶어 앞에 늘어 뜨려 착용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군복(軍服)을 갖추어 입는 경우 안에 동다리를 입었다. 한편 사대부가의 남자 아이들은 성인용과 달리 자수나 금박으로 여러 가지 길상(吉祥)문양이 장식된 전복을 까치두루마기 위에 입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왕실 아가씨 남색 부금(付金) 전복(그림 1)은 부금다홍저화단(付金多紅苧禾緞) 전대(戰帶)(그림 11)과 쌍을 이루는 것으로 길상어(吉祥語)가 전복의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장식되어 있다. 나머지 전복들도 모두 남아의 것으로 <그림 3>을 제외하고 <그림 1>에서

16 『문헌비고』에 “오늘날의 전복은 옛날 반비인데 일명 작자 또는 답호라고 한다”고 하여 전복과 답호, 더그레가 같은 구조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고종 21년 갑신 의제 개혁령을 보고 올린 직강(直講) 김영선(金榮善)의 상소에 “전복을 입으라 하고 답호령을 내림은 불가한 즉, 답호와 전복은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들어 전복과 답호는 달랐던 것으로 본다.

〈그림 6〉까지 남색에 길상 문양을 부금한 양식을 하고 있다. 붉은 전대나 〈그림 6〉의 붉은 사대 역시 다홍색 전대를 두르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림 9〉는 녹색에 부금 대신 붉은색으로 선을 둘러 장식을 하였다는 것이 독특하다. 전대는 아니나 자수 장식을 한 돌피와 같은 별도의 대를 부착하여 전대를 두른 전복의 전형적 차림을 여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7〉에서 〈그림 10〉은 전형적인 왕실 또는 반가의 첫돌 복식으로 등장하는 전복에서 맞깃이 달리거나 자수 돌피의 등장과 같이 조금 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전복, 1920년대, 남아용
출처 :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12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2. 전복, 1920년대,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15
경기여고 경운관물관 소장



그림 3. 전복, 1920년대, 남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40
김지윤 소장



그림 4. 전복, 1930년대,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25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5. 전복, 1940년대, 남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4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6. 1940년대,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45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7. 전복, 1900년대 초, 남아용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345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8. 전복, 1900년대 초, 남아용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346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9. 〈그림 8〉의 깃 부분 세부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345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10. 전복, 1900년대, 여아용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34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1. 전복, 1900년대 초, 남아용
출처 :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12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색동저고리

조선 후기 왕실 아가시의 의대 목록에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색동 옷’은 1932년 영왕의 2남인 왕자 구의 의대목록에 주의, 쾌자, 색동배자¹⁷가 등장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색동 등걸이 또는 색동 마고자로 불리고 유물 외에 <그림 1>의 전복 아래로 보이는 옷으로 색동 마고자가 있다. 이 외에도 1930년대 이후 왕실에서는 색동으로 소매를 단 까치두루마기도 보인다. 한편 1781년 김홍도가 그린 ‘모당 홍이상의 평생도’에서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양반가의 남자아이가 돌을 맞이해도 색동옷에 바지를 입었고 머리에는 굴레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적어도 첫돌 복식과 같은 어린이 복식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혔을 수 있다. 또한 여자 아이의 돌 옷은 일반적으로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 노란색 단속곳을 입히고 흑 격식을 더 갖추는 집안에서는 겹옷으로 까치두루마기에 조바위나 굴레 같은 쓰개를 갖춰 준다.¹⁸ 1925년에 발간된 최초의 재봉 서적인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蘇載縫全書)』에는 아동옷을 대표하여 색동저고리 짓는 법이 소개된 것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널리 입혀진 옷임을 알 수 있다. 색동의 소매 끝동은 여아의 경우 홍색 계열, 남아의 경우 남색 계열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저고리 길이가 약 30cm정도로 긴 편이나 여자아이의 저고리로 보이는 유물이다. 김정아(2011)의 연구¹⁹에 의하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슴 언저리에 오는 극단적으로 짧은 저고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1910년대까지 다양한 길이의 저고리가 공존한 것에 비하여 이 시대에 들어서는 허리선을 웃돌거나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비교적 긴 길이의 저고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저고리의 길이나 소매통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단색의 저고리와

17 숙명여자대학교 소장의 남송길 색동 마고자를 칭함.

18 조효숙 외, 2007, 앞의 논문, p.67.

19 김정아, 2011, 앞의 논문, p.148.

회장저고리를 비롯해서 색동저고리나 소매의 색상을 달리한 동다리 저고리 등이 꾸준히 착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15>에서 <그림 19>의 저고리는 색동소매는 물론이고 셔도 색동으로 장식을 한 것이 보인다. 셔를 색동 또는 조각을 이어 장식한 양식은 <그림 20>과 <그림 21>과 같이 192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돌사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색동저고리, 1910년대 이후, 여아용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245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13. 색동저고리, 1900년대, 여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54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4. 수(繡)저고리, 1900년대 여아용
출처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5. 자수색동저고리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247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16. 색동저고리, 1920,
출처 : 푸른 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키스전, p.41.



그림 17. 까지두루마기,
1900년대 초, 여아용
출처 : 우리옷과 장신구, p. 34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8. 색동저고리,
1900년대, 여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54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9. 색동저고리,
1900년대, 여아용
출처 : 이렇게 좋은 자수, p.222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그림 20. 색동저고리, 1928,
출처 : 『전주 서문교회』, p.32.
개항기이후 아동복식연구(2011), p.148



그림 21. 색동저고리, 1943
출처 : 사진으로 보는 이화 유치원, p.203.
개항기이후 아동복식연구(2011), p.178

(3) 마고자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옷으로 깃과 고름이 없이 앞 중심에 단추를 달아 여며 입는 옷이다. 색동 마고자는 돌날 남녀 구별 없이 저고리 길이를 길게 하여 입혔으며 여자아이는 자색, 남자아이는 남색의 끝동으로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은 남송(藍松) 길 색동 마고자 또는 색동 부금 배자라고 지칭되는 흔치 않은 왕실 색동 유물이다. 양 옆으로 깊게 터진 목 둘레에 금박으로 꽃문양을 3개씩 부금하고 고대와 끝동에도 금박 장식을 한 것이 보인다. 왕손 전용의 은칠보 오얏꽃 단추를 2개 달았다. <그림 22>에서 <그림 27>의 마고자는 길이 모두 녹색 계통이며 소매는 색동으로 되어있다. <그림 26>은 81세의 노모가 회갑을 맞은 아들을 위해 손수 지은 복식 일습 중 성인용 색등거리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화학섬유를 이용하여, 재봉틀로 거칠게 바느질된 상태이다.²⁰ '남송길 색동 배자'의 배색과 같이 그 주조를 이루는 색의 구성이 몸판은 녹색계열이고 소매는 색동이다. <그림 28>은 송화색이라고 설명된 앞·뒤 몸판에 각각 잔잔한 패랭이 꽃과 화려한 붉은 장미와 나비가 수놓인 여아용 마고자로 길이 31cm, 폭 33.5cm로 돌장이에게 입혔음직한 마고자이다. <그림 29>는 1950년대 유물로 개화기 이후 분홍저고리에 조끼와 마고자를 착용하게 된 남자 성인 복식의 영향으로 등장한 남색 마고자에 부금 장식을 한 유물이다. <그림 30>의 1960년대 마고자는 동다리 저고리에서 보이는 배색처럼 몸판과 소매를 다른 색으로 구성한 동다리 마고자이다. 고대점, 뒷목점, 어깨점에 홍색 박쥐 매듭을 달아 장식하였다.



그림 22. 색동마고자,
1940년대,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74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23. 색동부금배자,
1930년대, 남아용
출처 : 한국전통어린이 복식, p.32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24. 색등걸이,
1930년대, 성인용
출처 : 조선마지막공주 덕온가의유물 p.10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25. 색동마고자,
1940년대, 남아용
출처 : 한국전통어린이 복식, p.4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26. 색등걸이,
1968년, 성인용
출처 : 조선마지막공주 덕온가의유물 p.10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27. 색동마고자,
1940년,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34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경기도, 서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99.



그림 28. 마고자,
1900년대 초, 여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75
개인소장



그림 29. 마고자,
1950년대,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38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30. 색동마고자,
1960년대,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42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4) 풍차바지

〈표 5〉의 왕실 아가씨 의대발기 중에 ‘바지(붕디)’라 쓰여진 물목은 풍차바지를 의미한다. 용변을 가리기 전까지의 2세에서 4세 정도까지의 어린 아이가 입는 뒤가 터진 바지이다. 어른 바지와 같이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이어서 앞을 막히게 하여 배를 덮고 밑을 트며, 무를 달아서 여며 입도록 만들어졌다. 〈그림 31〉, 〈그림 36〉과 같이 누비풍차바지나 여아용 풍차바지는 사폭을 대지 않고 만들기도 하였다. 〈그림 32〉는 몸판과 대님, 허리가 모두 색이 다른 것이 이색적이다. 〈그림 33〉에서 〈그림 38〉과 같이 개화기에 치마허리 대신에



그림 31. 누비풍차바지, 1880년대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4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32. 연보라 솜풍차바지,
1890년대
출처 :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16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3. 잔누비풍차바지,
1890년대
출처 :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13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4. 풍차바지,
1910년대, 남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4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35. 풍차바지,
1910년대, 남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4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36. 풍차바지,
1920년대, 여아용
출처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4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37. 풍차바지,
1937년,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27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38. 개구멍바지,
1940년, 남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49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39. 솜풍차바지, 1900년대
출처 : 소곤소곤 당신과의 대화
채우는 이야기,
운양민속박물관 소장

조끼허리를 달게 된 것처럼 아이들의 풍차바지에도 조끼허리를 달아 입고 벗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38>은 뒤 트임 없이 아래만 터 놓은 형태로 ‘개구멍 바지’라고 하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가래 바지’라고도 한다.²¹ <그림 39>는 조끼허리가 달리지 않은 온양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솜을 둔 사폭 없는 풍차바지이다.

(5) 굴레

돌쟁이부터 4~5세 남녀 아이들이 방한과 장식을 겸해 착용하던 쓰개이다. 돌을 맞이한 아이가 많이 쓴다고 하여 ‘돌모자’라고도 한다. 검은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색의 비단 조각으로 만든다. 서울 굴레는 세 가닥으로 방한보다는 멋과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고 개성 굴레는 아홉 가닥으로 만들고 자수를 비롯하여 정수리 장식들이 풍성하다. 뒷다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며 아홉 가닥, 열 한 가닥으로 머리를 감싸도록 구성한다. 목다리와 뒷다리, 앞다리와 끈 등에 화려하고 소담스럽게 아이의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자수 장식을 한 유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왕실 아가시 의대에는 공정책과 같은 관모 외에 복건 외의 다른 쓰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어린이 굴레로 남아있는 유물들은 양반가나 민가에서 사용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굴레의 구성은 목을 둘러 감싸는 ‘목다리’와 목에서 후두부를 지나 정수리로 이르는 ‘뒷다리’와 양 볼을 감싸는 ‘앞다리’를 기본으로 한다. 정수리에는 꽃모양의 검정색 판인 화판(花板)을 얹어 그 위에 비취, 산호, 호박, 각종 보석 장식을 한 뒤, 주변을 붉은색 실로 풍성하게 장식을 한다. <그림 40>에서 <그림 43>까지는 모란과 연꽃 문양을 볼 수 있다. <그림 44>는 정수리의 화판을 보석이 아닌 싸개 단추와 같은 것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5~49>의 미국 뉴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개성굴레 다섯 점의 자수 문양은 모두 십장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1 추은희·김용서, 2003, 전남지역 출생 의례복식의 현지조사 고찰, 한국가정과학회지 6(1), p.41



그림 40. 굴레, 1800년대 후반
출처 : 조선마지막공주 덕온가의 유물, p.144,14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41. 굴레, 19C
출처 : 이렇게 좋은 자수, p.223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그림 42. 굴레, 1930년대
출처 : 옛 어린이 옷, p.98
개인소장



그림 43. 굴레, 20세기 초
출처 : 옛 어린이 옷, p.101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44. 굴레, 1900년대, 여아용
출처 : 옛 어린이 옷, p.100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그림 45. 굴레, No.98.9.11
출처 : 뉴욕 박물관 소장



그림 46. 굴레, No.2011.25.8
출처 : 뉴욕 박물관 소장



그림 47. 굴레, No.2011.25.9
출처 : 뉴욕 박물관 소장



그림 48. 굴레, No.2011.25.10
출처 : 뉴욕 박물관 소장



그림 49. 굴레, No.2001.77.3
출처 : 뉴욕 박물관 소장

Ⅲ. 소장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

1. 전복

연구 대상인 2점의 전복은 모두 분홍계열이다. 유물 [No.1]은 진분홍색의 사(紗)직물에 먹자주색 항라로 어깨솔기, 진동, 옆트임, 도련, 뒤트임 주변으로 선을 두르고 원삼과 같이 맞깃을 달아 자수를 깃머리 양쪽에 두었다. 깃과 동정에 선을 물려서 박음질 하였다. 나머지 연분홍색의 전복[No.2] 치수와 구성 방식과 형태가 동일하다. 선을 두른 소재는 초록색 뉴텐²²으로 보인다. 제작에 사용된 바느질법은 모두 손바느질로 박음질과 흠질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1900년대로 제시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녹색 전복(그림 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깃 머리에 장식을 하고, 동정과 깃에 선을 물리고 별 색으로 선을 둘렀으며 몸판 앞·뒤에 자수 장식을 한 띠를 부착시킨 구성 방식이 많이 남아있다. 왕실 아기시의 사규삼에서 볼 수 있음직한 분홍색의 사용과 붉은 바탕천에 자수를 놓아 부가하였던 전통적인 띠 띠 제작 방식과는 다르게 미색 바탕천에 현대적인 문양의 잔잔한 꽃수를 넣은 띠 띠 장식이 독특하다.



그림 50. 진분홍색 전복(앞)



그림 51. 진분홍색 전복(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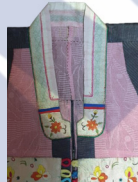


그림 52. 맞깃, 여밈 세부



그림 53. 동정·깃, 선단 구성 세부



그림 54. 연분홍색 전복(앞)



그림 55. 연 분홍색 전복(뒤)



그림 56. 맞깃 자수 장식, 바느질 세부



그림 57. 뒷 몸판 고대, 수돌띠 세부

22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편 : 뉴뽕은 유뽕, 뉴텐이라고도 불린다. 개항기 전후로 일본에서 수입되어 사용하다가 1930~1940년대에 조선견직(朝鮮絹織), 조양방직(朝陽紡織)에서 본건 뉴뽕을 생산하였다. 1950~1960년대는 견 또는 인조견으로 만든 뉴뽕을 주로 사용하였다. 1960년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많이 사용하였다.

-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6914> (2019.12.23.)

2. 저고리, 마고자

유물 [No.3.]은 진 초록색 몸판에 여러 색 조각으로 색동소매를 하고 남색 끝동과 붉은 색 깃, 고름에 자수 장식을 하고 있는 여아용 색동저고리이다. 기러기 매듭으로 고름을 연결하여 긴 돌띠로 몸을 둘러매도록 하였다. 깃선과, 진동선, 섶, 고름을 모두 검정색 선을 넣어 장식하고 진동선과 섶선에 다시 눌러 박기 하듯 박음질과 세 땀 상침으로 마무리 하였다. 안감은 목면 계통이고, 겹감은 모두 뉴텐 직물이다. 소매는 이염된 상태가 많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구성방식과 바느질 방법이 보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까치두루마기 <그림 17>에서 볼 수 있는 자수 구성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개 깃과 끝동은 같은 방식으로 수를 놓거나 하는데, 이 유물은 끝동에 놓인 자수 문양은 패랭이꽃으로 보이고, 깃에 놓인 꽃은 국화문이며 형태는 조금 더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섶와 수 돌띠에 보이는 십장생 문양 속의 사슴의 문양과 수기법도 많이 다르다. 수를 놓은 시기가 다르거나 다른 옷에서 남은 수놓인 부위를 모아서 아이 옷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섶에 놓인 사슴과 수 돌띠에 놓인 사슴의 도안과 자수 기법의 차이, 우측면을 바라보는 학의 모



그림 58. 색동수돌띠 저고리(앞)



그림 59. 색동수돌띠 저고리(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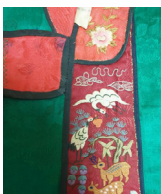


그림 60. 깃머리, 섶 자수



그림 61. 진동 선치기, 끝동 자수



그림 62. 자수 돌띠 십장생 자수 문양



그림 63. 자주색동저고리 (앞)



그림 64. 자주색동저고리 (뒤)



그림 65. 깃, 동정, 진동



그림 66. 먹염된 명주 안감과 이어붙인 안깃



그림 67. 초록색동저고리 (앞)



그림 68. 초록색동저고리 (뒤)



그림 69. 깃선에 물려있는 선단, 진동 재봉 박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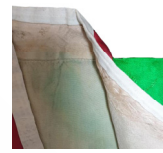


그림 70. 안감 바느질과 이염된 상태



그림 71. 연두색생동 마고자(앞)



그림 72. 연두색생동 마고자(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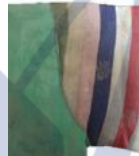


그림 73. 진동선 눌러박기 세부



그림 74. 안감의 다리미질 자국

양은 유사하나 표현 기법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그 추정의 근거이다.

자주색동저고리와 초록색동저고리는 모두 겹감은 뉴텐, 안감은 명주로 하였다. 재봉틀 바느질로 다소 거칠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주색 깃, 고름으로 보아 여아용이며, 겹섬은 색동감으로 하였다.

3. 풍차바지

〈그림 31~39〉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아동용 풍차바지는 색상이 대개 소색계열이 많으며 큰사폭과 작은 사폭이 연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소장품인 〈그림 75~86〉의 풍차바지 유물은 사폭이 없는 여자 속바지 형태의 구성도 아니며, 뒤가 트여있고 무도 달려있는 구성이 이채롭다. 특히 다양한 색상으로 바지와 허리, 부리, 대님 등의 소재와 배색이 매우 특징적이다. 다양한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5. [No.7]



그림 76. [No.7] 안쪽 세부



그림 77. [No.8]



그림 78. [No.8] 안쪽 세부



그림 79. [No.9]



그림 80. [No.9] 안쪽 부분



그림 81. [No.10]



그림 82. [No.10] 안쪽 부분



그림 83. [No.11]



그림 84. [No.11] 안쪽 부분



그림 85. [No.12]



그림 86. [No.12] 안쪽 부분

4. 굴레

유물 3점 모두 개성식 굴레로 뒷다리에 십장생과 모란 연꽃 등을 주문양으로 하는 자수 장식이 보인다. 유물 [No.13], [No.15]는 뉴어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굴레의 자수 문양과 같은 십장생문을 뒷다리에 장식하고 목다리도 태양과 괴석, 영지 등이 보인다. 정수리 장식의 경우 3점 모두 붉은 계열 견사를 풍성하게 모아서 화판이 되는 검정색 바탕 위에 꽃잎처럼 돌렸다. 유물 [No.13]은 보석 장식은 없이 녹색 쓰개 단추를 만들어 중앙에 종이



그림 87



그림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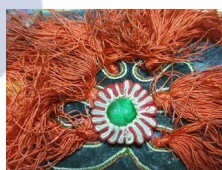


그림 89



그림 90



그림 91



그림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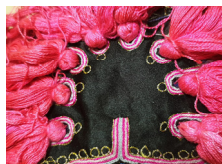


그림 93



그림 94



그림 95



그림 96



그림 97



그림 98

꽃을 둘러 앉혔다. 주변에 보석 장식은 없다. 유물 [No.14]는 장식을 미처 완성하지 않은 상태의 유물이다. 유물 [No.15]는 정수리 검정색 화판의 중앙에 회색 싸개단추 뒤쪽으로 자마노와 같은 옥석을 장식하였다.

IV. 결론

소장자의 유물은 1920년대에서 늦게는 1970년대 후반 즈음에 이르는 시기의 유물들로 보인다. 먼저 어린이 전복[No.1][No.2]의 경우 19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인 연두색 전복과 양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수의 도안이 전통적인 길상문이나 문자문이 아닌 현대적인 도안에 몸판의 색상 역시 분홍색 계열의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초반 양식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색동수돌 띠저고리[No.3]와 색동감으로 심을 한 2점의 저고리는 [No.4~5]는 192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도 보이는 양식이다. 심과 소매를 색동으로 이어 붙인 것이 아니고 색동감으로 제작된 소재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00년대 후반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색동마고자[No. 6]은 20세기 영왕의 아들 구의 돌 생신 의대 중 남송색동부금동배자라고 하는 왕실 양식과 유사하나 바느질은 매우 거칠었다. 몸판과 소매를 연결하는 조끼 저고리형의 진동 부분의 바느질도 재봉틀로 다소 거칠게 눌러 박은 모습이다. 소매도 색동감이다. 저고리와 같이 1900년대 후반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풍차바지 6점[No.7~12]은 모두 동일한 치수로 둘장이를 위해 한 곳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록풍차바지[No.11]에 사용된 보라색 크리스탈 원단²³ 제외하고 안감은 모두 목면 계통이다. 굴레 3점은 1920년대

23 광장시장에서 1990년대 후반에 유통되던 합성소재 가운데 ‘크리스탈’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던 원단으로 비치는 소재로 광채가 나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라고 명명된 것으로 판매자는 설명하였다. 1980년대에는 일명 ‘깁깁이’로 불리었다. 한복이 일상복이 아닌 예복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소위 ‘사철 깨끼’라고 하여 계절성을 갖지 않는 파티복 개념으로 한복 소비가 일어날 때 유행한 바 있다.- 필자 주

전후의 유물에서 보이는 자수문양, 정수리 장식의 양식들과 유사하였다. 가락을 만드는 소재에 뉴텐 직물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190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수집가의 소장품에 대한 편년을 추정하는 기준을 실물 자료가 아닌 박물관 도록이나 연구 논문에 제시된 사진에 의거한 만큼 후속 고찰을 통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사 연구의 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어린이 복식 연구에 실물 자료로써 의미 있는 개인 소장품을 소개한 것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숙, 2002,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서울 : 도서출판 신유.
- 김정아, 2011,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정아, 2018, 근대 한국 아동복식의 변천 : 1884~1945, 한국복식 제39호, pp.63-91.
- 김정아·홍나영, 2009, 1920~1950년대의 출생의례복, 복식 59(7), p.1-16.
- 박성실, 2000, 전통 아기 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 전통 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 경기도, pp.135-176.
- 박성실, 2012, 덕온공주가 유물 소장 배경과 유형별 특징,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편, 경기도, pp.218-241.
- 이경자·홍나영·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 열화당.
- 이명은, 2018,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 유물에 관한 고찰 -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 한국복식 제 39호, pp.37-62.
- 이민주, 2018, 대한제국 황실 어린이 의례복식에 관한 일고찰 - 장서각 소장 영친왕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복식 제39호, pp.5-35.
- 조효숙, 2005, 한국의 전통어린이 옷, 옛 어린이 옷 도록, 경운박물관 편, 경기도, pp.136-152.
- 조효숙·최은수, 2007, 근대 아동한복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pp.63-73.
- 최은주, 2016, 19세기말 풍속화가 기산 김준근이 그린 삼화 속 어린이 놀이문화와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8(3), pp.289-300.
- 추은희·김용서, 2003, 전남지역 출생 의례복식의 현지조사 고찰, 한국가정과학회지 6(1), pp.35-44.
- 허동화, 2001, 이렇게 좋은 자수, 한국자수박물관, 서울.
- Yoon-Young Ji, Na-Young Hong, 2001, Changes in the Ceremonial Dresses for Children's First Birthday Since 194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9), pp.1681-1692.

A Study on Child Costume Relics of a Private Collector in Modern Era

Ji Su-Hyu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Costume Science Wonkwang Digit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ome of the children's costumes that have yet to be reported to scholars, of all the embroidered costumes owned by Min Yeon-hwa(1954-), a lover and private collector of embroidery. About 20 of the 250 or so costume items are for children, and the study has examined total 15 items composed of 2 pieces of *koeja* ('long vest'), 3 pieces of *jeogori* ('vest-shaped armhole jacket'), 1 piece of *magoja* ('bolero'), 6 pieces of *pungchabaji* ('baby pants'), and 3 pieces of *gule* ('baby cap').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academic value of the artifices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s that are collected by a private collector, and specifically, to date the artifices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 and elucidate their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ailed information and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fices and get a rough date for them by comparing them with the identical costumes which show in published books and photos including the research papers and exhibition catalogs on children's costumes. Then, the study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collector's artifices appear to date back to the period between the 1920s and the late 1970s. The children's *koeja* [No.1][No.2] was made in the method that is similar to the method for making the yellow-green *jeonbok* ('long vest'), which is kept at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and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in the early part of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Jasu doltti saekdong jeogori* ('vest-shaped armhole jacket with multicolored sleeves that includes a embroidered first anniversary sash') [No. 3] and 2 pieces of *jeogori* (armhole jacket') which includes a gusset made with a multicolored fabric [No. 4-5] are of a style that appeared in the 1940s or later. *saekdong magoja* ('bolero with multicolored sleeves') [No. 6] is similar to the royal style

called *Namsongsaekdongbugeumdongbaeja*, as part of the clothing worn by Gu, a son of the 20th-century king, on his first birthday, but the sewing involved is quite gross. *Pungcha baji* ('baby pants') were made like women's underpants, not *sapokbaji*, that includes a waist without a vest waist. Except for the green *pungcha baji* [No.11] that uses as its liner *kkalkkali*, which was supplied as a material suitable for *kkaekki* ('gossamer clothes with linings') sewing, all the liners were cotton fabrics. 3 pieces of *gulle* ('baby cap') carry decorations that resemble those for embroidered decorations or top of head decorations that show in those artifices dated to the 1920s. As the items owned by a private collector have been dated according to the photos included in museum catalogs or research papers instead of actual artifices, a more meticulous verification through follow-up examinations should be necessary. None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roduces private collections which are meaningful as actual materials for the study of children's costumes, which takes up an area in the study of the costume history.

Keywords : *Jeonbok* (Sleeveless jacket), *Saekdong Jeogori* (Jacket with multicolored sleeves), *Saekdong magoja* ('bolero with multicolored sleeves'), *Pungcha baji* (Baby pants), *Gulle* (baby cap)

손소(孫昭) 적개공신화상(敵愾功臣畫像)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윤진영*

■ 논문요약

1476년(성종 7)에 그린 〈손소 적개공신화상〉은 조선초기 공신화상의 주요 특징을 전해주는 자료이다. 반측면의 얼굴 방향을 취한 형식은 〈손소 공신화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형태감과 세부 묘사에는 15세기 초상화로서의 높은 완성도가 잘 나타나 있다. 1476년 세조어진(世祖御眞)을 모사할 때 참여한 최경(崔涇), 안귀생(安貴生), 배련(裨連) 등의 화원이 적개공신화상 제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손소가 1467년 적개공신에 녹훈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공신화상이 제작된 것은 연이은 국장(國葬)과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섭정기(攝政期) 등 매우 혼란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으로 보았다. 1476년 성종이 친정(親政)을 강화하면서 공신의 예우에 관심을 가진 것이 10년 전 중단된 적개공신화상의 제작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공신상은 입각도형(立閣圖形)이라 하여 충훈부(忠勳府)에 한 본을 보관하는 것이 공신교서(功臣校書)에 기록되었으나 태종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정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손소 공신화상〉은 당시 한 본만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손소 공신화상〉은 1795년 이명기(李命基, 1756~1802 이후)에 의해 이모본(移模本) 한 본이 그려졌다. 손소의 후손인 손국제(孫國濟, 1719~1795)가 당시 장수찰방(長水察訪)인 이명기에게 부탁하여 그린 것이다. 이명기와 주고받은 세 통의 간찰이 전하고 있다.

〈손소 공신화상〉은 15세기 공신복식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첩리(帖裏)와 답호(搭襖)의 묘사, 직금흉배(織金胸背)와 품계의 관계, 오사모(烏紗帽)와 각의 표현, 협금화(挾金靴)의 착용, 그리고 1936년에 촬영한 사진 속에 나타난 1735년의 이모본 세조어진의 대략적인 형상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았다. 〈손소 공신화상〉은 복식의 시대성을 담고 있는 자료이며, 조선초기 공신화상이 지닌 다양한 시사점을 살필 수 있는 사례로서 공신화상의 연구 범위를 확충해주는 자료라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손소(孫昭), 공신화상(功臣畫像), 적개공신(敵愾功臣), 복식(服飾), 공신복식(功臣服飾)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 yjy2033@aks.ac.kr

I. 머리말

‘형상을 전하는 것은 그림보다 좋은 것이 없다(存形莫善於畫)’¹는 화론(畫論)의 한 구절처럼 초상화는 감상자에게 마치 살아 있는 인물을 대하듯 강한 실존감을 체험하게 한다. 특히 한 가문(家門)에 속한 인물의 초상화일 경우 그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수백 년 전 선조(先祖)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고, 그 형상을 후대로 전해주는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초상화는 가내의 영당(影堂)이나 사우(祠宇)에 모셔져 제향(祭享)과 추모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문의식(家門意識)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상화의 속성으로 인해 여말선초에는 제향의 대상으로 신주(神主)보다 초상화가 널리 활용되었다. 물론 조선중기 이후에는 성리학(性理學)의 확산과 더불어 신주가 초상화를 대체해 갔지만, 초상화는 여전히 선조의 모습을 침망(瞻望)하며 감화를 일깨우는 유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초상화가 지닌 교화와 감계(鑑戒)의 기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초상화는 여러 계기에 의해 그려졌지만, 한 개인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고 그 상훈(賞勳)으로 받은 공신화상은 가문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후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가보(家寶)로 대물림되었다. 이러한 공신화상이 지닌 특성과 가치뿐 아니라 조선초기 공신 초상화 연구의 주요 논점을 예시해 주는 한 사례가 여기에서 살펴볼 <손소(孫昭) 적개공신화상(敵愾功臣畫像)>(이하 ‘손소 공신화상’으로 표기)이다. 적개공신은 1467년(세조 13)에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녹훈된 공신들을 말한다.

<손소 공신화상>은 1476년(성종 7)에 그려진 뒤, 지금까지 경주손씨(慶州孫氏) 종가에 전해져 오고 있다.² 손소(孫昭, 1433~1484)는 자(字)가 일장(日章)이며,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병조좌랑, 종묘서령(宗廟署令)을 역임하였다. 35세이던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평로장군 박중선(朴仲善)의 종사관으로 군무를 맡아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로로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녹훈되어 내섬시정(內膳寺正, 정3품)에 특진되었고, 뒤에 계천군(鷄川君)에 봉해졌다.³ 이때 상전(賞典)으로 받은 초상이 바로 <손소 공신화상>이다. 이 공신화상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손소의 유고(遺稿)를 정리한 『양민공유사(襄敏公遺事)』의 「연보(年譜)」에 1476년(성종 7)에 공신화상을 그려 종가에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⁴

1 張彥遠, 『歷代名畫記』 卷1, 「敘畫之源流」, (故陸士衡云) “宣物莫大於言, 存形莫善於畫”

2 <손소 적개공신화상>은 2000년 경주손씨 고문서류와 함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되었다.

3 손소가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 계천군(鷄川君)에 봉해진 것은 적개공신에 녹훈된 지 6년이 지난 1472년(성종 3)이다. (『성종실록』 3년(1472) 11월 16일)

지금으로부터 544년 전에 그려진 〈손소 공신화상〉은 놀랄 만큼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초상화로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⁵ 뿐만 아니라 15세기의 복식과 관련하여 공신 복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복식사료로서의 가치 또한 크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도 많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손소 공신화상〉의 현상과 특징, 15세기에 활동한 초상화가들, 그리고 공신에 녹훈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신화상이 그려진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신화상은 충훈부에 한 본을 보관한다는 충훈부 봉안설의 사실과 정조대(正祖代)의 화원 이명기(李命基, 1756~1802 이후)가 이모(移模)한 이모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초상양식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복식사적 고찰과 함께 향후 공신화상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손소 공신화상〉의 현상과 특징

이 장에서는 〈손소 공신화상〉(그림 1)에 나타난 초상화로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앞 시기 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부분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손소 공신화상〉은 그림 위쪽에 비단이 박락된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도 미세한 박락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시기를 알 수



그림 1. 손소 적개공신화상
1476년, 견본채색, 170.0×100.0cm,
장서각(경주손씨 송침중택 기탁),
보물 제1216호



그림 2. 장말손 적개공신화상
1476년, 견본채색, 168.0×106.3cm,
영주 인동장씨 연복군 종택,
보물 제502호



그림 3. 오자치 적개공신화상
1476년, 견본채색, 160.0×105.0cm,
개인소장, 보물 제1190호

- 4 『襄敏公遺事』의 「年譜」에는 1476년(성종 7) 손소 44세 시에 “왕이 충훈부에 명하여 여러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려 내려주고서 충신들의 본가에 소장하게 하였다”(上命忠勳府圖畫諸功臣影像 賜給 藏于本家)는 기록이 있다.
- 5 〈손소 적개공신화상〉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조선미 교수의 연구(『韓國肖像畫 研究』(悅話堂, 1983), 199~201쪽)가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초기 초상화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검토 자료로 소개되고 있다.

없지만, 족자의 원래 장황(粧潢)은 제거된 채 그림만 남아 있으며, 화면에는 그림을 상하 4등분, 좌우 3등분하여 접었던 자욱이 나있다. 아마도 족자의 나무 축을 떼어낸 뒤, 급히 이동하기 위해 그림을 접었던 흔적이 분명하다. 화면의 곳곳에도 작은 꺾임이 있지만, 비단의 상태나 색감 등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적개공신화상은 현재 손소 외에 장말손(張末孫, 1431~1486)(그림 2), 오자치(吳自治, 1426~?)(그림 3)의 공신화상이 전한다. 손소를 포함한 이 3점의 공신화상은 모두 같은 양식을 취했다. 두 손을 소매 안으로 넣은 공수(拱手) 자세와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全身坐像)의 형식, 뽀뽀하게 풀을 먹인 듯한 단령(團領)의 윤곽선 처리가 3점의 공신화상에 함께 적용되어 있다. 이외에도 단령 아래 자락의 틈새로 보이는 안쪽 포(袍)의 색감과 구조, 의자와 족좌대(座臺)의 형태, 자리가 깔리지 않은 바닥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15세기 후반기 공신화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다.

〈손소 공신화상〉 속의 손소는 오사모(烏紗帽)에 아청색 단령을 착용했다.(그림 4) 사모는 각이 둥근 15세기 형식이다. 얼굴 부분은 특징이 잘 드러나게끔 정면과 측면의 중간에서 바라본 시점(視點)으로 그렸다. 얼굴은 갈색선으로 윤곽을 그렸고, 눈 부위의 쌍꺼풀과 잔주름 등은 간략히 처리하였다. 콧등의 굴곡과 오른쪽 콧망울이 화가가 바라본 각도에 맞게 잘 드러나 있어 합리적인 관찰과 표현이 돋보이는 부분이다.(그림 5) 이러한 특징은 조선중기에 이르러 이보다 더 형식화되고, 일부는 퇴보하는 형태로도 표현되었다. 이는 〈손소 공신화상〉을 그린 15세기 중엽의 초상화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던 시기였음을 말해준다.

이 시기에는 아직 음영법(陰影法)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피부의 색감과 질감의 표현은 매우 세련된 면이 있다. 비단의 뒷면에 채색을 한 뒤 앞면으로 투과되어 나온 색감을 이용한 배채(背彩) 기법이 자연스레 적용되었다. 여기에 수염과 구레 나무의 섬세한 세필(細筆)



그림 4. 〈손소 적개공신화상〉 부분(상반신)
1476년



그림 5. 〈손소 적개공신화상〉 부분(얼굴)
1476년



그림 6. 이지란 화상
국사편찬위원회의 흑백사진
(유리원판)



그림 7. 마천목 좌명공신화상
이모본, 견본채색,
『朝鮮史料集眞』續2



그림 8. 신숙주 좌익공신화상
1454년, 견본채색, 167.0×109.5cm,
고령신씨 문충공파 종약회,
보물 제613호

묘사가 사실적인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다만, 얼굴의 방향은 반측면이지만, 눈동자가 응시하는 방향과 입 모양은 정면을 향했다.(그림 5) 이처럼 얼굴의 방향에 따른 눈과 입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은 점은 15세기 초상화에 나타난 표현상의 불합리한 점이다. 또한 〈손소 공신화상〉의 상반신은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에 가깝다. 흉배를 정면에서 그리려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하반신은 다시 반측면의 형태로 그렸다. 이러한 신체의 표현에도 시점의 불일치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후대에 모두 개선되지만, 15세기의 초상화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시대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손소 공신화상〉보다 앞서 그려진 공신화상과의 비교를 통해 앞 시기 화상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자. 적개공신은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책봉된 27번의 공신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공신이다. 그리고 녹훈이 있던 1467년(세조 13)은 1392년 개국공신의 녹훈 이후 85년이 지난 시점이다. 개국공신 초상화로는 상반신을 그린 〈이지란(李之蘭) 공신초상〉이 전한다.(그림 6) 원본으로 추정되는 이 초상은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얼굴을 돌린 상태이다. 이러한 취세는 이모본인 〈마천목(馬天牧) 좌명공신화상〉(그림 7)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비해 〈손소 공신화상〉은 얼굴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반투시의 각도를 향한 점과 전신의 비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 점, 흉배와 문양 등의 세부묘사가 이전 시기보다 더 보완된 것이 특징이다. 개국공신 이후 여러 차례 공신의 녹훈이 거듭되었고, 잦은 공신의 책봉과 화상의 제작은 초상화의 수준을 점차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적개공신화상에 앞서 제작된 전신좌상(全身坐像)의 공신상으로 전하는 것은 〈신숙주 좌익공신화상〉(그림 8)이 유일하다.⁶ 공신에 녹훈된 1455년(세조 1)에 그린 것으로 추측되며, 현존하는 공신화상으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 〈신숙주 좌익공신화상〉을 〈손소 공신화

상)과 비교해 보면, 앉아 있는 신체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숙주 좌익공신화상〉의 얼굴 묘사는 완숙한 수준을 보이지만, 신체와 의자의 표현에는 구조적인 실재감이 긴밀하지 못하다. 즉 하체의 무릎에서 허벅지로 연결되는 부분의 단축적(短縮的)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 의자에 앉은 취세는 〈손소 공신화상〉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신숙주 좌익공신화상〉과 〈손소 공신화상〉은 제작 시기에 있어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시기 양식이라 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차이는 화가 개인이 실력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손소 공신화상〉을 그린 화가가 좀 더 묘사의 수준이 뛰어나다고 하겠다. 특히 〈손소 공신화상〉에서 목 부분의 녹색 포(袍)를 뽑아 올리듯 강조한 부분이나 의자에 앉은 신체 표현의 변화 등이 앞 시기의 공신화상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손소 공신화상〉은 형태감이나 표현력에서 〈신숙주 좌익공신화상〉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초상화가들의 표현 역량이 충만하던 15세기 중엽 공신화상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Ⅲ. 15세기 중엽의 초상화와 세조어진

〈손소 공신화상〉이 제작된 15세기 중엽의 초상화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소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당시 초상화가들의 활동과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15세기의 대표적인 초상화가로는 최경(崔涇)과 안귀생(安貴生), 배련(裨連) 등이 알려져 있다.⁷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추사본(追寫本)이나 이모본 어진 제작에 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어진의 추사나 이모와 관련하여 가장 두각을 나타낸 화가는 최경이다. 그는 도화서 생도(生徒)를 거쳐 화원이 되었으며,⁸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인해 일찍부터 조정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조실록』에는 최경의 처신이 적절치 못하여 도화서에서 파직 당했고⁹ 약 8년 뒤에 복직한 사실이 나온다.

6 신숙주는 1455년(세조 1) 8월 19일에 정3품 도승지에 임명된 뒤, 9월 5일 좌익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신숙주 공신화상〉에 보이는 백한(白鵬)은 정3품에 해당하는 흉배 문양이므로 이 초상은 좌익공신화상이 된다.

7 『성종실록』 3년(1472) 5월 25일; 7년(1476) 5월 27일.

8 『세조실록』 9년(1463) 3월 7일.

9 『세조실록』에는 최경이 權貴한 자들을 잘 사귀어서 도화원 별좌를 제수 받고 通政大夫로 가자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이후 사간원에서 신원조회 과정인 鞠經을 통과시키지 않자 최경은 그 부당함을 말하는 과정에서 임금에게 거짓 고변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1463년 결국 파직당하고 만다. (『세조실록』 9년(1463) 3월 7일) 최경이 파출됨을 부당히 여겨 원망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세조는 그를 도관의 노비가 되게 하였다가(『세조실록』 10년(1464) 7월 5일) 약 2개월 뒤에 풀어주었다.

최경은 성종의 비호로 다시 화원이 되었고,¹⁰ 1472년(성종 3) 5월에는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세조(1417~1468)·예종(睿宗, 1450~1469)·의경왕(懿敬王; 덕종 1438~1457)의 어진을 그림으로써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¹¹ 이때 그린 3점의 어진과 왕후상은 모두 추사본(追寫本)이거나 이모본일 것이다. 왕의 사후에 그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을 추사본이라 하는데, 추사본의 제작은 15세기에 한동안 이어졌다.¹² 1472년 당시 어진 제작에 참여하여 포상을 받은 화가는 최경과 안귀생(安貴生), 화원 배련(裴連), 김중경(金仲敬), 백종린(白終隣), 이춘우(李春雨), 이맹상(李孟相), 조문한(曹文漢)과 사용(司勇) 이인석(李引錫), 화원 김직(金直)과 이백연(李百連) 등 모두 11명이다.¹³ 이 화가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최경의 두 번째 도화는 1476년(성종 7) 안귀생, 배연과 함께 이모한 세조어진이다. 이때 이모본을 그린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성종은 어진 모사가 끝난 뒤 최경을 비롯한 세 사람의 화원을 승직시켜 관직을 줄 것을 명했다. 당시는 적개공신화상이 그려진 시기이므로 세조어진의 이모본 제작에 참여한 화원들이 공신화상을 그리는 데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진이나 공신화상은 그럴 기회가 드물었지만, 공신화상의 경우는 그려야 할 수량이 많은 관계로 화원들이 총동원되어야 했을 것이다.

〈손소 공신화상〉을 비롯한 적개공신화상이 제작되던 1476년(성종 7)에 세조어진의 이모본이 제작되었다. 이후 세조어진은 1735년(영조 11)과 1936년에 각각 이모본이 제작된 바 있다. 1936년에 세조어진 이모본을 제작하던 장면은 당시에 촬영한 사진으로 남아 있다.(그림 9) 사진 속의 화가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어진화사인 김은호(金殷鎬 1892~1979) 화백이다. 이 사진 속에 임시로



그림 9. 김은호의 세조어진 모사 장면(1936년 촬영)



그림 10. 김은호의 세조어진 모사 장면(1936년 촬영) 속의 세조어진

10 『성종실록』 2년(1471) 12월 12일.

11 『성종실록』 3년(1472) 5월 25일.

12 李裕元, 『林下筆記』 권14, 「文獻指掌編」, 「璿源殿」

13 『성종실록』 3년(1472) 5월 25일.

만든 가당가(假唐家) 안에 걸려 있는 초상화가 바로 1735년(영조 11)에 이모한 세조어진이다. 어진은 최초로 그린 도사본(圖寫本)으로부터 몇 차례 이모가 거듭되더라도 최초 도사본의 도상은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한 치의 오차나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면, 완성 단계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1548년(명종 3) 홍섬(洪暹)이 경복궁의 선원전에 들어가 봉안된 어진을 목격하고서 태종(太宗)·세종(世宗)·세조(世祖)의 어진이 모두 선원전에 걸려 있었다고 말한 대목이다.¹⁴ 즉 세조어진은 선원전에 한 점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⁵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홍섬이 보았던 경복궁 선원전의 어진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화재로 망실되었을 터인데, 세조어진의 원본은 어떻게 후대에 전해져 1735년(영조 11)에 이모본이 그려질 수 있었을까?

1468년(세조 14) 세조가 승하하자 예종(睿宗, 1450~1469)은 광릉(光陵)을 조성하고 능침사찰로 봉선사(奉先寺)를 중창하였다.¹⁶ 그리고 여기에 생존 시에 그린 세조어진 한 점을 이모하여 봉안하였다. 이 세조어진이 바로 영조의 명으로 1735년에 이모한 세조어진의 모본이었다. 그렇다면, 모본이 된 세조어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여러 차례 사라질 위기를 극적으로 넘겼다. 그 과정은 이렇다. 임진왜란의 와중이던 1593년(선조 26) 3월, 봉선사에 왜군이 주둔하자 승려 삼행(三行)이 어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전하였는데, 광릉참봉 이이첨(李爾瞻)이 삼행과 함께 적진에 잠입하여 세조어진을 받들고 나온 뒤 의주(義州)의 행재소로 옮겼다고 한다.¹⁷ 전란이 끝난 뒤 세조어진은 다시 서울의 남별전(南別殿)으로 돌아와 봉안되었다. 이후 병자호란 때는 세조어진을 강화도의 영송전(永崇殿)으로 옮겼으나, 1637년(인조 15) 2월 강화도가 함락될 때 어진을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조어진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겠지만, 최종적으로 남별전을 중수 한 뒤에 다시 봉안되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전란으로 심하게 망가진 세조어진은 이후 약간의 보수만 거친 뒤 봉안되었던 것이다.¹⁸ 1735년(영조 11) 7월, 영조는 신하들과 의논하여 남별전

14 『명종실록』 3년(1548) 10월 10일.

15 李裕元, 『林下筆記』 권14, 「文獻指掌編」, 「瓊源殿」.

16 1469년 윤 2월 23일의 실록 기사에는 예종이 한명회 등을 불러 봉선사를 영조(營造)하는 일을 의논한 기사가 있고(『예종실록』 1년(1469) 윤2월 23일), 같은 해 4월 21일에는 봉선사의 영전에 참봉 2인을 두도록 이조에 명한 기사가 있다(『예종실록』 1년(1469) 4월 21일).

17 『선조실록』 26년(1593) 3월 16일.

18 보수 작업은 강화도에서 서울로 옮길 당시에 곤옹포(袞龍袍)와 어탁(御榻)에 생긴 흠을 보수하였고(『인조실록』 26년(1648) 6월 1일), 1670년(현종 11)과 1713년(숙종 39)에도 한 차례씩 보수가 있었다. 1726년(영조 3)에도 이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지영, 「英祖代 眞殿政策과 《影幀摸寫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551쪽.

의 세조어진을 이모하기로 했다.¹⁹ 원본이 형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던 것이 이모를 결정하게 된 이유였다. 놀랍게도 당시 이모하고자 한 어진은 세조가 살았을 때 그린 3백 년이 넘는 어진이었다.²⁰ 1735년(영조 11)에 이모한 세조어진은 바로 사진 속 가당가(假唐家) 안에 걸린 어진이다. 이 어진은 조선초기 어진의 원본 형식을 담고 있어 희미한 상태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 속의 초상이 세조어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1936년 김은호가 이모한 것은 세조어진과 원종(元宗, 1580~1619, 인조의 아버지) 어진 두 본이었다. 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던 이왕직(李王職)에서는 이 두 본이 각 한 점씩만 유일본으로 남아 있어 망실을 대비해 한 본씩 이모해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원종어진은 추존되기 전에 그려둔 익사공신화상(翼社功臣畫像)을 선원전에 봉안해 왔으므로 김은호가 이모한 원종어진은 단령을 입은 모습이였다.²¹ 그렇다면 사진 속에 김은호가 이모한 것은 원종어진이 아니라 세조어진이 분명하다.(그림 10) 정면상에 보(補)와 흉배가 있는 곤룡포를 입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사진 속의 세조어진이 중요한 것은 세조의 재세연간에 그린 봉선사 봉안본 어진을 일차로 이모한 것이므로 거의 같은 시기에 그린 <손소 공신화상>이 어떤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또한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뒤편의 복식관련 부분에서 다루겠다.

IV. 녹훈 뒤 10년 만에 그려진 <손소 공신화상>

<손소 공신화상>에서 밝혀야 할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적개공신으로 녹훈된 지 10년이 지나서 화상이 제작된 점이다. 『양민공유사(襄敏公遺事)』의 「연보(年譜)」에는 1476년(성종 7) 손소 44세 시에 “왕이 충훈부에 명하여 여러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려 내려주고서 충신들의 본가에 소장하게 하였다”(上命忠勳府圖書諸功臣影像 賜給 藏于本家)는 기록이 있다.²² 이는 <손소 공신화상>의 오른편 상단에 적힌 글씨의 내용과도 부합된다. 그림에는

19 1735년 세조어진의 이모에 대해서는 당시에 작성한 『影幀模寫都監儀軌』가 규장각과 장서각에 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成美, 「擁正十三年九月日 影幀模寫都監儀軌」,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951~955쪽; 김지영, 앞의 논문(2004), 551쪽.

20 영조는 1735년 7월 8일, 영희전(永禧殿)에서의 작헌례酌獻禮 시에 300년을 봉안해 온 영정이 하루아침에 훼손되고 나면 바라보고 정리(情理)를 펴 곳이 없게 되므로 이모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影幀模寫都監儀軌』, 「乙卯 八月初三日 禮書」(장서각 K2-2765(天)).

21 임현우, 20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반소(半燒)된 공신초상화의 주인공 검토, 고궁문화 3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9~29쪽.

붉은 글씨로 “右雞川君孫侯昭之眞 成化十二年 丙申 上命忠勳府圖諸功臣影 賜焉 時侯年四十四爾”라 적혀 있다. 「연보」의 기록은 화상에 적힌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녹훈된 공신의 화상을 10년이 지난 뒤에 내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화상의 글씨 가운데 ‘제공신영(諸功臣影)’이라 한 것은 이때 손소의 화상만이 아니라 여러 공신들의 화상이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손소 공신화상〉이 10년이 지나서 그려진 이유를 밝혀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1467년(세조 13)부터 1476년(성종 7)까지 왕실 내외의 여러 크고 작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신상의 제작을 미룰 만큼 어떤 급박한 사안이 있었는지 정황이 될 만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공신화상의 제작에 대한 과정을 추론해 보자. 1467년에 녹훈된 적개공신 45인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해 9월 20일에 공신 녹훈이 있었지만, 초상화 45점을 완성하는 데에는 아마도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²³ 여기에 이듬해인 1468년(예종 즉위) 9월 8일에 세조가 승하함으로써 공신화상의 제작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1468년 10월에는 예종의 즉위와 함께 남이(南怡)의 옥사(獄事)와²⁴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익대공신(翊戴功臣)에 대한 녹훈이 있었다. 익대공신은 1468년 10월 28일에 녹훈되었으나²⁵ 교서를 나누어 준 것은 약 7개월 뒤인 1469년(예종 1) 5월 20일이었다.²⁶ 이때 예종은 경회루에서 익대공신에게 교서와 술을 내려주었으나 공신화상을 내렸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는 익대공신화상만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한 해 전에 녹훈된 적개공신의 화상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469년(예종 1) 11월, 예종의 승하로 인해 공신화상의 제작은 다시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471(성종 2) 3월 27일에는 성종의 즉위를 도와 공신이 된 좌리공신(佐理功臣)이 정해졌고,²⁷ 이듬해 7월 3일에 녹권(錄券)을 주었으나 역시 화상을 그려 주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²⁸ 좌리공신의 화상도 앞서 본 익대공신의 경우처럼 녹훈 당시에 화상이 제작될 수

22 『襄敏公遺事』, 「年譜」.

23 예컨대 1604년(선조 37)의 호성·선무·청난공신화상을 제작할 때의 사례를 보면, 58명의 공신화상을 그리는데 준비기간부터 해서 최소 약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扈從宣武原從功臣都監儀軌』(서울大學校 奎章閣, 1999, 390쪽))

24 남이(南怡)(1441~1468)의 옥사는 남이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고,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이 이시애의 난 평정으로 등장한 신세력을 제거할 때 병조판서에서 해직되어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밀려났다. 1468년 예종 즉위 후 역모를 꾀한다고 유자광(柳子光)이 모함함으로써 국문 끝에 죽임을 당한 사건.

25 『예종실록』 즉위년(1468) 10월 28일.

26 『예종실록』 1년(1469) 5월 20일.

27 『성종실록』 2년(1471) 3월 26일.

없었다. 즉, 공신화상의 제작은 적개공신화상 때부터 지체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공신(舊功臣)의 화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신공신(新功臣)의 화상을 먼저 그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좌리공신을 녹훈할 1471년 당시 성종의 나이는 15세였다. 1469년 성종(成宗)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지만, 즉위와 동시에 7년간 정희왕후(禎禧王后, 1418~1483)가 수렴청정을 단행하였다. 이 기간은 섭정(攝政)에 의한 왕권의 약화와 권신들의 정권다툼이 횡행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1476년에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되면서 신진세력들의 등장과 더불어 정국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468년에는 세조가 승하했고, 1469년에는 예종이 승하하여 3년 사이에 왕위가 두 번이나 바뀌게 된 것이다. 1470년에서 1476년까지는 정희왕후의 섭정기였다. 그리고 예종과 성종 초에는 두 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적개공신의 녹훈 이후 10년 간은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친정 체제에 들어선 성종은 훈구대신(勳舊大臣)을 견제하며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주도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은 공신화상의 제작이 보류되어 온 듯하다. 1476년에 적개공신화상을 제작하여 공신들에게 내려준 것은 성종의 친정과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도 공신의 관리와 대우에 대한 관심이 성종의 친정기에 새롭게 제기되었고, 그것이 곧 10년 전에 예우를 다하지 못한 적개공신의 화상을 제작하고 공신가에 내려주게 된 계기이자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V. 입각도형(立閣圖形)의 실제

손소의 적개공신화상으로는 현재 문중에서 소유한 화상 이외에 개인이 소장한 한 점이 더 전하고 있다. 이 초상은 <손소 공신화상>을 1759년(정조 19)에 이모한 것으로 화면의 왼쪽 아래에 ‘正祖十九年 乙卯 改模’라고 적혀 있다. 이 기록이 화면에 없었다면 애초에 두 본을 제작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공신화상을 제작할 때 규정처럼 알려진 것이 두 본의 화상을 그려 하나는 충훈부(忠勳府)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공신가(功臣家)에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출처를 알 수 없고, 명확히 고증된 적도 없다. 충훈부 보관본이라는 공신화상도 소개된 사례가



그림 11. <손소 적개공신교서> 부분
1467년, 필사, 장서각(경주손씨 송첩중택 기탁)

교서(敵愾功臣敎書)에 기록된 “立閣圖形(입각도형) 樹碑記功(수비기공)”이라는 기록이다.(그림 11) 이 기록과 함께 공신화상의 충훈부 봉안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입각도형 수비기공”은 녹훈된 공신에게 내리는 포상 내역의 첫 번째 항목이다. ‘입각도형’은 건물을 세우고 화상을 그려서 거는 것이고, ‘수비기공’은 비를 세워 그 공적을 기록한다는 것이다.²⁹ 여기에서 ‘입각(立閣)’과 ‘수비(樹碑)’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신에게 내리는 특별한 예우였다. 그런데, 공신화상을 걸어둔 건물이나 공신의 공적을 기록한 비(碑)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는 실제로 건물과 비를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조선초기의 공신교서에 적힌 “입각도형”과 “수비기공”은 과연 실행되었던 것일까?

우선 ‘입각도형’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태조실록』에 공신화상을 장생전(長生殿)에 걸었다는 기사가 나온다.³⁰ 1395년(태조 4) 태조는 공신화상을 걸어둘 용도로 장생전을 궁궐 서쪽에 세우게 하였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는 공신들이 충당하게 하였다.³¹ 태조는 여기에 공신의 초상을 그려서 걸도록 하고 자신의 어진도 함께 봉안하게 하였다.³² 이것이 태조가 추진한 ‘입각도형’이었고, 개국공신 교서에 ‘입각도형’이라 기록한 근거였다.

태종은 공신화상과 관련된 태조의 사업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1411년(태종 11) 5월, 태종이 태조의 뜻을 받들어 장생전을 수리하고, 태조어진과 개국공신의 화상을 다시 그리게 한 것이 한 예이다.³³ 당시의 공신으로는 개국공신 외에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년 녹

29 ‘입각도형’과 ‘수비기공’이 공신교서에 기록된 초기의 예로는 <이화(李和) 개국공신록권>(1392), <마천목(天牧) 좌명공신 녹권>(1401), <김길통(金吉通) 좌리공신교서>(1472) 등이 있다.

30 장생전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는 관곽(棺槨)을 제작하고 관리하던 관서이다. 관원은 영의정이 겸임하는 도제조 1인과, 호조·예조·공조 판서가 겸임하는 제조 3인, 호조·예조·공조의 낭관이 겸임하는 낭청 3인이다. 오늘날의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에 해당하는 북부 관광방(觀光坊)에 위치하였다.

31 『태조실록』 4년(1395), 7월 13일, 장생전이 이미 완공되었다는 기록은 『태조실록』 7년(1398) 7월 5일 기사에 나온다.

32 개국공신화상은 최초 녹훈 당시(1392년 8월 20일) 44명이었으나 이후 추록과 삭훈으로 인해 녹훈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 『조선의 공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317쪽. ‘조선시대 정훈공신 명단’ 참조.

훈)과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년 녹훈)이 있었으나, 장생전에는 개국공신의 화상만 태조 어진과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³⁴

그런데 태종은 장생전을 수리한 몇 일 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역대 어진을 봉안한 중국의 제도를 찾아서 보고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진과 공신화상을 함께 봉안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당나라의 경우 능연각(凌煙閣)을 두어 공신만을 그렸고, 송대에는 궁(宮)과 전(殿)에 황제와 훈신(勳臣)의 초상을 함께 봉안한 예가 있다고 했다. 이에 태종은 어진의 경우 송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공신의 도화는 당나라의 제도를 채택하라고 했다.³⁵ 태종이 가졌던 생각은 어진과 공신화상을 따로 분리하는데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1411년 6월 태종은 장생전을 찾아 태조어진과 개국공신화상이 봉안된 곳을 살펴보았다.³⁶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생전’의 이름을 ‘사훈각(思勳閣)’으로 고치고자 했다. 그리고 예조에 명하여 어진과 공신화상을 함께 봉안한 옛 제도를 찾도록 하였다. 예조에서는 한(漢) 나라 영대(靈臺)와 당(唐) 나라의 능연각(凌煙閣)은 공신만을 그렸을 뿐, 어진을 봉안한 예는 없다고 했다.³⁷ 이는 공신화상을 어진과 별도로 봉안해야 한다는 태종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전거가 되었다.

태종은 당나라 능연각의 제도를 본받아 공신화상을 걸어 둘 공간을 ‘전(殿)’이 아닌 ‘각(閣)’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를 실행하는 태종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다. 애초에 태조어진과 공신화상을 장생전에 함께 봉안한 것은 바로 태조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태종은 장생전의 개칭(改稱)을 추진하면서도 그 결정 과정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태조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대신들에게 장생전을 사훈각으로 이름을 바꾸는 사안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장생전은 사훈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³⁸

그런데, 사훈각으로 이름을 고친 뒤, 태조어진과 개국공신화상을 함께 걸어두는 관행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태종이 사훈각으로 이름을 고친 뒤, 실록에는 더 이상 관련 기사가 없었는데, 7년이 지난 1418년(태종 18)의 『태종실록』 기록에 사훈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태종이 1411년에 논의된 사훈각에 태조어진과 공신화상을 모시고자 한 일이 중단된

33 『태종실록』 11년(1411), 5월 4일, “命修長生殿, 且圖太祖眞及開國功臣影, 遣完城君李之崇, 奉迎平壤太祖眞, 將以摹寫也.”

34 태종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 때 자신을 도운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의 화상을 걸기 위해 전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이는 물론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교서에 기록된 입각도형의 상전이 태종대에는 실행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5 『태종실록』 11년(1411), 5월 18일.

36 『태종실록』 11년(1411), 6월 7일.

37 『태종실록』 11년(1411), 6월 25일.

38 『태종실록』 11년(1411), 6월 25일.

까닭을 신하들에게 묻는 내용이 있다. 이때 허조(許綽, 1369~1439)가 그 일이 고전(古典)에 없고, 또한 의정부와 공신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바라고 답하였다.³⁹ 사훈각으로 이름을 바꾼 것과 태조어진과 개국공신화상을 분리한 사안은 누구보다 태종의 관심사였다. 태종은 1411년 이후 사훈각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 있지만, 대신들이 장생전을 사훈각으로 이름을 고친 뒤 어진과 공신화상의 봉안 건을 중지시킨 것은 아마도 태종의 의중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추측된다.

사훈각에 공신화상을 걸어두고자 한 일이 중단된 또 다른 이유를 허조는 하륜(河崙)의 계문(啓聞)을 들어 말하였다. 하륜은 앞으로 공신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때마다 초상화를 걸어둘 전각을 짓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태종은 한(漢)과 당(唐)의 공신각이 공신의 숫자가 적어서 유지된 것이 아님을 들어 그 대안을 계속 궁구하라고 명했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태종의 말과 달리 태조가 시행한 장생전과 공신화상을 거는 문제는 결국 태종연간을 넘어 지속되지 못했다. 어쩌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던 태종에게 군신의 초상화가 함께 걸려 있는 자체가 반갑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다.

1413년(태종 13)에는 사고(史庫)를 사훈각의 재궁(齋宮)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⁴¹ 사훈각에 공신화상을 걸었던 이전의 기능은 없어진 셈이다. 1444년(세종 26)에는 장생전의 옛터에 관(棺)인 수기(壽器)를 보관하는 곳을 짓는다는 기록과⁴² 후대에 왕실 또는 대신들에게 내려주기 위한 관곽(棺槨)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⁴³ 공신화상을 봉안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사훈각은 1413년 이후 용도가 바뀌었고, 공신화상을 거는 것도 그것으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태조가 장생전을 세워 자신의 어진과 개국공신의 초상을 걸어두고자 한 것은 바로 ‘입각도형’을 위한 실천이었다. 여기에 대해 태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는 국초(國初)에 옛일을 상고하지도 않고, 한갓 공신에게 내린 글에,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린다.’는 귀절이 있었기 때문에, 장생전을 세운 것이다.” 태종은 태조의 ‘입각도형’이 철저한 상고(詳考)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어진과 공신화상을 함께 걸고자 했고, 입각(立閣)의 명분을 얻기 위해 장생전을 세운 것으로 본 것이다.⁴⁴ 결과적으로 장생전의 입각도형은 태종연간에 잠시 지켜졌고, 이후 태종은 고제(古制)에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 더 이

39 『태종실록』 18년(1418), 4월 6일.

40 『태종실록』 18년(1418), 4월 6일.

41 『태종실록』 13년(1413) 5월 21일.

42 『세종실록』 26년(1444) 7월 17일.

43 『중종실록』 7년(1512) 12월 22일. 여기에 대해서는 권혁산, 2007, 朝鮮中期 功臣畫像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pp.37~38.

44 『태종실록』 11년(1411), 6월 25일.

상 추진하지 않았다.

‘입각도형’은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에서 좌리공신(佐理功臣, 1471)에 이르기까지는 교서(敎書)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수비기공’과 함께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서 공신교서의 상전에 첫 번째로 기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입각도형’은 1506년(중종 즉위년)의 정국공신교서(靖國功臣敎書)에서부터 사라지게 된다. 즉, 정국공신교서에는 ‘입각도형’ 대신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한다는 ‘도형수후(圖形垂後)’로 바뀌었다.(그림 12) 이는 정국공신교서 이후 광국(光國)·호성(扈聖)·청난공신(淸難功臣) 교서에서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⁴⁵ ‘도형수후’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공신인 분무공신(奮武功臣, 1728년) 교서에까지 첫 번째 포상 내역으로 들어가 있다. ‘도형수후’는 공신화상을 한 점만 그려 공신가에 내려주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표현이다.

공신화상을 두 본 제작한다는 말은 ‘입각도형’과 관련하여 태조연간에 개국공신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 개념이었다. 태종 이후로는 공신화상을 별도의 건물을 지어 봉안한 적이 없었다. ‘수비기공’의 기록 또한 한 번도 실행된 적 없이 15세기까지 교서에만 기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손소 공신화상>을 충훈부에서 한 본을 더 제작하여 보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 종손가에 전하는 한 점만이 당시에 제작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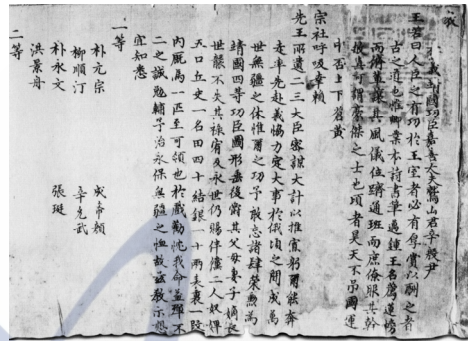


그림 12. <신은윤(辛殷尹) 정국공신교서> 부분
1507년, 『朝鮮史料集眞』續2

Ⅵ. 이명기(李命基)가 그린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본

손소는 44세(1476, 성종 7)에 공신에게 내려주는 적개공신화상을 받았고, 8년 뒤인 1484년(성종 15) 52세로 별세했다. 손소의 공신화상은 그의 사후 약 30년간 경주 양동마을의 서백당(書百堂)에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1514년(중종 9) 차남 손중돈(孫仲墩)이 마을 입구 분통골 언덕에 관가정(觀稼亭)을 짓고서 분가할 때, 사당을 따로 건립하고 손소

45 예컨대 ‘도형수후’로 기록된 것은 <신은윤(辛殷尹) 정국공신교서>(1506년), <류성룡(柳成龍) 광국공신교서>(1590년), <이충원(李忠元) 호성공신교서>(1604년), <신경행(辛景行) 청난공신교서>(1604년)에서 확인된다.

의 위패(位牌)와 화상(畵像) 등을 모두 모셔 나갔다.⁴⁶ 이후 관가정이 종가(宗家)가 되었고, 이로부터 약 400년간 손소의 공신화상은 관가정의 사당에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759년(정조 19)에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移模)가 한 차례 이루어졌다. 이 이모본은 원본에 충실한 형태와 세부 묘사가 잘 처리되었고, 특히 얼굴의 이목구비와 구렛나루, 수염 등의 세필 선묘가 돋보인다.(그림 13) 단령 전체는 탈색된 상태인데, 여기에 가슴과 좌측 상반신에 가필(加筆)의 흔적이 나타나 있다.

이모를 맡은 화가는 정조대 최고의 초상화가인 화원(畵員) 이명기(李命基, 1756~1802년 이후)이며, 이를 계획하여 성사시킨 자는 손소의 5대손인 손국제(孫國濟, 1719~1795)이다.⁴⁷ 초상화는 오랜 세월이 지나 탈색과 박락이 생겨 훼손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베껴 그린 이모본을 만들어 원본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명기가 <손소 공신화상>을 이모한 사실은 손국제의 문집 『학와집(鶴窩集)』에 실린 「행장(行狀)」과 이명기와 주고 받은 편지에서 확인된다.

이명기는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龍珠寺) 불화 제작에 감동(監董)을 맡았고, 1791년(정조 15)에는 정조어진(正祖御眞) 제작을 주도하였다.⁴⁸ 이때의 공로로 1793년(정조 17) 4월 28일 장수도(長水道) 찰방(察訪)에 임명되었다.⁴⁹ 이후 1795년(정조 19, 40세) 8월까지 2년 4개월간 이곳에서 찰방으로 근무하였다.⁵⁰ 찰방은 각 도(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문관 종6품의 외관직이며,⁵¹ 장수도는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신령면(新寧面)에 있던 장수역(長



그림 13. <손소 적개공신화상> 이모본
1795년, 견본채색, 172.0×93.5cm, 개인 소장

46 황위주, 2013, 처마 끝 소나무에 갈무리한 세월, 경주 송재 손소 종가, 예문서원, 서울, 96~97쪽.

47 손국제는 정범조에게 『우재실기(愚齋實記)』 서문을 청탁하였고, 「상달암중수기(上達庵重修記)」를 지은 인물로서 가문 내의 여러 선양 사업을 맡아서 주도하였다.

48 이명기는 1791년 주관화사로 참여하여 정조의 40세 어진을 그렸다. 이해 9월 28일에 시작하여 17일 만에 완성할 만큼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때 그린 것은 원유관본 한 본이다. 어진의 완성에 대한 시상으로 주관화사 이명기와 동참화사인 김홍도에게 '상당직제수'가 내려졌다.(윤진영, 2004, 藏書閣 所藏 『御眞圖寫事實』의 正祖~哲宗代 御眞圖寫, 『藏書閣』 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0~293쪽) 이후 이명기는 1793년(정조 17) 4월 28일 장수도 찰방에 임명되었다.

49 『승정원일기』 정조 17년(1793) 4월 28일.

50 『장수역지(長水驛誌)』, 「선생인(先生案)」; 장인석, 「華山館 李命基 繪畵에 대한 研究」(명지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10쪽.

51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마필과 관원을 두어,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용여행자에게 숙소제공·마필 공급 등 편의를 도모하는 기관을 역참이라 하였고, 약간의 역참을 1구로 하여 이를 역도라 칭하고, 그 구간의 마정을 맡아보는 관직을 마관이라 하였다. 고려후기부터 역승이라고 하다가 1535년(중종 30)부터는 찰방이라고 개칭하였다.

水驛)을 말한다. 이명기의 이름 앞에 쓴 ‘장수승(長水丞)’이란 장수(長水)의 찰방을 뜻한다.

이명기는 장수도 찰방으로 있던 중 인근 지역의 유지들과 교유하며 그림을 의뢰 받아 그려준 사례가 많았다. 알려진 것으로는 1793년(정조 17) 성주도씨(星州都氏) 문중의 도필구(都必九)가 가져온 <열녀서씨포죽도(烈女徐氏抱竹圖)>를 모사한 바 있고,⁵² 1794년(정조 18)에는 정조의 명으로 영천의 은혜사(銀海寺) 상종암(上簞庵)에 봉안된 신라시대 경순왕(敬順王) 어진을 이모한 적이 있다.⁵³ 이명기가 찰방으로 근무하던 영천 신령은 경주와도 가까워 경주 지역의 선비들과도 왕래가 잦았던 듯하다. 손국제가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본을 부탁하고 이명기가 이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명기가 <손소 공신화상>을 이모한 것은 장수찰방으로 있던 1795년 3월의 일이었다. 손국제의 『행장』에 “...乙卯改摹襄敏公影幀 以長水丞李命基 有能畫聲 公躬進以請 敦事而歸...”라는 기록이 있어 손국제가 이명기를 찾아가 직접 부탁하였고, 이명기도 바로 승낙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손국제의 나이는 77세, 이명기는 40세였다.

손국제와 이명기가 주고받은 편지는 3편이 확인되어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본 제작과 관련된 일면을 알 수 있게 된다. 손국제가 보낸 편지는 한 편으로 그의 문집 『학와집』에 실렸고, 이명기가 보낸 간찰 2편은 경주손씨가 고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손소의 공신화상을 이모한 직후인 1795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왕래한 편지였다. 이를 정리하면 ①손국제→이명기 : 1795년 4월경, ②이명기→손국제 : 1795년 6월 3일, ③이명기→손국제 : 1795년 동지일 등이다.

먼저 손국제의 문집에 실린 이명기에게 보낸 편지는 첫머리에 “與李察訪 命基 乙卯襄敏公改模後”라 적혀 있다.⁵⁴ 따라서 이해 3월,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가 완료된 직후에 보낸 편지가 된다. 안부를 묻는 인사로 시작하여 선조(先祖)의 유상(遺像)을 무사히 모시고 돌아왔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또한 화상을 본 수 백인의 사람들이 찰방 이명기의 신묘한 화법(畫法)을 모두 칭송하였고, 화상이 그려진지 320년 만에 이모본을 그린 성사(盛事)에 고

52 이명기, 『抱竹圖重摹記』, 『靑松堂都先生實記』, 장인석, 앞의 논문, 11쪽. 이 포죽도에 대한 연구로는 신수경, 2007, <조선시대 열녀도의 양태와 <烈女徐氏抱竹圖>, 美術史學研究 253, 한국미술사학회, 129~158쪽, <열녀서씨포죽도>의 주인공인 서씨는 세종 때 사람인 도운봉의 부인이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자 남편이 기르던 대나무를 안고 애통해 하기를 1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씨가 눈물을 흘린 자리에 하얀 대나무가 돌아나 화제가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세종이 그 열행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도록 명하였으며, 그림을 본 후 어제시를 내리고 정려하여 치하하였다. 『세종실록』 20년(1448) 7월 17일 이때 세종에게 올려진 <白竹圖>는 문중에 하사되어 전해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66년(현종 7)에 다시 그렸으나, 이후 너무 낡아 정조 때 증모한 것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이 증모본을 이명기가 그린 것이다.

53 은혜사에 있던 경순왕 어진은 1792년 대수재(大水災)로 인해 훼손되었는데, 1794년 김건항이 호소하여 당시 경상도감사 조진택이 경주시 황남동으로 어진을 옮기면서 2본을 이모하였다. 경순왕 어진의 이모에 대해서는 정병모, 2010, 신라경순왕영정의 제작과 그 의의, 강좌 미술사 35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46~53쪽; 장인석, 앞의 논문, 12쪽 각주 39 참조.

54 孫國濟, 『鶴窩集』 권1, 「與李察訪 命基 乙卯襄敏公改模後」.

마음을 표하는 내용이다. 편지의 후반부에는 손국제가 신병(身病)으로 인해 거동하지 못하기에 안부만 전하며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글을 맺었다.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본(移模本)은 320년 만에 이모한 것이며, 가내에서 숙원하던 일이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이명기에게 이모본 부탁을 성사시키 것과 그 진행 과정을 손국제가 맡아서 추진하였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편지는 1795년 6월 3일자로 이명기가 손국제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안부를 묻는 인사와 함께 그림 2종을 편지와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다. 하나는 병풍으로 손국제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뒤, 여가가 없는 가운데 간신히 완성하여 보낸다고 했다. 또 하나는 8폭짜리 작은 그림으로 손국제의 사촌이 부탁한 것인데, 동봉하여 보내니 대신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손국제와 이명기는 <손소 공신화상>의 이모본 제작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손국제의 사촌 또한 이명기에게 그림을 부탁하였고, 이명기는 틈나는 대로 여기에 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명기가 부탁을 받아 그려준 병풍과 8폭짜리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화조화(花鳥畵)나 장식화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림의 청탁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진 거래 관계이지만, 찰방으로 근무하는 이명기의 사적인 도화(圖畵) 활동의 다양한 일면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 번째 편지는 이명기가 1795년 8월, 찰방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뒤에 보낸 편지이다. 발신일이 을묘년(1795) 동짓날인 이 편지에는 손국제의 안부와 이명기 자신의 바쁜 공무, 연행(燕行)을 앞둔 이야기, 그리고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한 미안함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손국제와 이명기는 나이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매우 돈독한 친분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명기가 보낸 이 편지를 손국제는 끝내 열어보지 못했다. 편지를 받기 약 1개월 전인 10월 29일에 손국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손국제의 문집, 그리고 이명기와 주고받은 세 점의 편지는 1795년 <손소 공신화상>을 당시 장수 찰방으로 있던 이명기가 이모하였고, 이를 계기로 친분이 쌓여 그림 청탁이 이어졌으며, 두 사람이 매우 인간적인 정리를 나누는 관계였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손소 공신화상>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당시에 굳이 이모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만약을 대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모본이 있으면 그것을 사당에 걸어두고, 원본은 함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보존에 힘쓸 수 있고, 또한 화상이 유일본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다면 이모본의 제작은 바람직한 판단이었다. 또한 이명기와 같이 유능한 화가가 인근에 있었다는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손국제가 이모본 제작을 주도한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VII. 〈손소공신 화상〉의 복식

〈손소 공신화상〉의 얼굴은 좌안(左顔) 7분면이고, 몸체는 8분면의 방향을 취했다. 이 7분면의 취세는 적개공신상에서 처음 나타난다. 현존하는 장말손과 오자치의 적개공신화상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시대 초상화사에서 7분면 초상양식이 정립되는 분기점을 이 적개공신화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이 7분면의 취세는 17세기의 공신화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⁵⁵

〈손소 공신화상〉에서 보이는 복식은 조선시대 문관의 의례용 단령 관복 차림이다. 흉배가 부착된 흑단령에 사모를 쓰고 품대를 둘렀으며 흰색 화(靴)를 신은 모습이다. 의복은 의례용 흑단령에 초록 답호와 대홍 철릭을 받침옷으로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령의 소재는 운문(雲紋)의 검정빛에 가까운 아청색(鴉靑色)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 부분은 너비가 좁고 둥근 모양의 깃이 목에 닿을 정도로 좁게 파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깃 안쪽에 받쳐 입은 녹색은 옷은 답호로 추정되며, 목 위로 높이 올라가 있어 근엄한 느낌을 준다. 녹색 깃 다음의 흰색은 답호 속에 받쳐 입은 철릭의 흰색 동정으로 추정된다. 단령의 옆선에는 무가 달리고 트임을 주었으며 무 상부에 주름이 뭉쳐 안쪽으로 들어간 듯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의 트임 사이로 붉은색과 녹색 포가 노출되어 있는데, 녹색은 목 부분에 표현된 답호이며, 붉은 색은 철릭[帖裏]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에 사대부는 철릭을 입고 소매가 짧은 답호를 덧어 외출복이나 단령의 받침옷으로 착용하였다. 그 색상은 세조 때에 명나라 사신에게 아청색 원령(鴉圓領), 초록색 답호(草綠塔胡), 대홍색요선철릭(大紅腰線帖裏) 일습을 하사한 기록⁵⁶이 있어 〈손소 공신화상〉의 색상과 일치한다. 이후 16세기의 공신화상에서는 대홍색 답호와 초록색 철릭으로 묘사되어 대별된다.

앞 시기 〈신숙주 좌익공신화상〉에서는 단조롭게 처리하였지만, 〈손소 공신화상〉에는 겉면과 안감을 구분해 놓아 부분적이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단령의 가슴에 묘사된 흉배는 구름과 기러기를 도안한 문관 2품에 해당하는 운안흉배(雲雁胸背)이다.⁵⁷(그림 4) 손소는 공신으로 녹훈된 당시의 품계가 통훈대부로 정3품이지만, 공신에 녹훈된 지 6년 뒤에 가선대부 계천군(鷄川君)에 봉해져 종2품으로 격상되었다.⁵⁸ 따

55 조선미, 2009, 한국의 초상화-形과 影의 예술, 돌베개, 경기도, 447쪽.

56 『세조실록』 세조 6년(1460) 3월 2일.

57 『단종실록』 2년(1454) 12월 10일조에 文武官의 흉배 제도에 대한 규정을 정해 기록한 내용이 있다. 문관 1품은孔雀, 2품은雲雁, 3품은白鵝이라 되어 있다.

58 『성종실록』 3년(1472) 11월 16일.

라서 공신화상에는 종2품의 품계를 적용하여 운안흉배가 들어가 있다. 원래 공신화상에 나타난 흉배의 문양은 공신 녹훈 당시의 교서(敎書)에 기록된 품계를 기준으로 하지만,⁵⁹ 적개공신의 경우는 화상을 그려서 내려준 시기가 지체되었기에 제작 당시의 품계에 따라 흉배의 문양을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흉배는 금색 실로 옷감을 짤 때 문양을 함께 직조하여 만든 직금흉배(織金胸背)이다. 15세기 직금흉배의 또 다른 예는 1455년(세종 1)에 그려진 <신숙주 좌익공신도상>의 백한(白鵠) 흉배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8)

<손소 공신화상>의 사모는 모정이 다소 높은 편이며, 양각의 시작과 끝이 좁고 중간이 넓은 타원형이고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당상관 이상의 초상화에 묘사되는 문사각(紋紗角) 오사모 제도⁶⁰는 이후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정국공신화상(靖國功臣畫像)에서 양각이 수평상태로 그려지며 운문(雲紋)이 나타나기 시작한다.⁶¹

소매 윗쪽으로는 허리에 두른 품대(品帶)가 노출되어 있다. 품대의 띠돈에 조각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금테를 두른 것으로 보아 소금대(素金帶)로 추정된다. 『경국대전』에서는 명나라 제도에 이등체강원칙을 적용하여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⁶²를 사용하였으므로, 종2품의 품계를 적용한 <손소 공신화상>과 일치하고 있다.

신발은 흰색의 긴 화(靴)를 신었고, 발은 족좌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신발은 사슴 가죽(白鹿皮)으로 만든 협금화(挾金靴)로 추정되는데, 『경국대전』에 신발은 공복(公服)에는 흑피화(黑皮靴), 상복(常服)에는 당상관에 한하여 협금화를 신는다⁶³고 하였다. 세조 때에 명나라 사신에게 의복과 함께 하사한 기록으로 백녹피협금화(白鹿皮挾金靴)⁶⁴, 흑사피협금화(黑斜皮挾金靴)와 마피협금유화(馬皮挾金油靴)⁶⁵ 등을 볼 때 재료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 듯하며, 그 형태는 신 밑창에 징을 박은 신으로 추정⁶⁶하는 정도이다.

예컨대 1872년(고종 9) 1월, 고종이 선원전의 세조어진을 둘러보며 “옛날의 신발은 흰 가죽으로 만들었는가?”라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⁶⁷ 그런데 사진 속의 가당가(假唐家)에 걸린 어진을 자세히 보면, 흥미롭게도 세조어진의 신발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아마도 백녹피(白鹿皮)로 만든 협금화(挾金靴)일 것으로 추측된다. 협금화의 모양이 정면관을 한 세조

59 윤진영, 2008,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전반기 武官胸背 도상, 韓國服飾 2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10~112쪽.

60 『續大典』 卷3 「禮典」 儀章條.

61 이은주, 2008,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 服飾 58(5), 한국복식학회, 122쪽.

62 이은주, 2011,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10), 한국복식학회, 136쪽.

63 『經國大典』 卷3 禮典 儀章條.

64 『세조실록』 세조 5년(1459) 3월 15일.

65 『세조실록』 세조 14년(1468) 4월 21일.

66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靴·鞋·履』, 서울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194쪽.

67 『승정원일기』 고종 9년(1872) 1월 6일.

어진에서 여덟팔자의 모양을 했다면, 〈손소 공신화상〉은 사선방향으로 평행하게 놓였다. 협금화는 15세기의 어진과 공신화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 당시의 의전(儀典)에 맞는 신발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번에는 〈손소 공신화상〉을 세조어진(世祖御眞)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1936년 김은호 화백의 이모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등장한 세조어진은 1476년의 최경, 안귀생, 배연이 모사한 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진 속의 세조어진은 1476년에 그린 〈손소 공신화상〉이 세조어진과 어떤 동시대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어진과 공신화상이 동등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초상화의 시대양식이 어진과 공신화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이다.

세조어진은 정면상(正面像)을 취했고, 익선관(翼善冠)에 양 어깨 아래에 보를 붙이고 가슴에 황룡 흉배를 단 곤룡포(袞龍袍)를 입은 모습이다. 윤곽이 선명하지 않지만, 곤룡포의 소매가 〈손소 공신화상〉의 단령 소매처럼 좁아 보인다. 세조가 앉은 의자는 태조어진과 같은 용상(龍床)이 아닌 교의자(交椅子)이다. 의자의 등근 손잡이 끝 부분이 노출된 점은 〈손소 공신화상〉에서와 같다. 그러나 세조어진은 양 손을 맞잡은 팔이 교의자의 손잡이를 기준으로 볼 때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는 경기전(慶基殿)의 〈태조어진〉과 같은 형식이다. 그러나 〈손소 공신화상〉에는 소매 부분이 교의자 손잡이를 기준으로 볼 때 위로 올라와 있어 어진과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세조어진에는 바닥에 채전(彩氈) 문양을 그렸으나 〈손소 공신화상〉에는 바닥을 그리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세조어진 좌우에 유소(流蘇)가 길게 드리워진 것은 어진에 어울리는 장황의 특색이다. 1472년과 1476년의 어진 제작에 참여한 화원들이 1476년의 적개공신화상을 그리는 데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된다. 1476년에 그린 〈손소 공신화상〉이 1936년의 사진 속에 걸려 있는 세조어진과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보인 점은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VIII. 맺음말

조선초기의 초상화는 전하는 사례가 적고, 문헌자료도 부족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워주는 자료가 국가에 공을 세운 공신에게 그려준 공신화상(功臣畫像)이다. 공신화상은 제작연대가 분명하고, 화원들이 그린 것으로 화격이 높아 초상화의 시대양식이 잘 함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손소 적개공신화상〉을 고찰하면서 그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들을 살펴

보았다. 먼저 <손소 적개공신화상>의 현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1476년(성종 7) 세조어진(世祖御眞)의 모사에 참여한 최경(崔涇), 안귀생(安貴生), 배련(裴連) 등의 화원이 적개공신화상의 제작에 참여했을 정황들을 파악해 보았다.

손소가 1467년(세조 13) 적개공신에 녹훈된 지 10년이 지난 1476년에 공신화상이 제작된 것은 연이은 국장(國葬)과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섭정기(攝政期) 등 매우 혼란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으로 보았다. 1476년 성종이 친정체제(親政體制)를 강화하면서 공신의 예우에 관심을 가진 것이 10년 전 중단된 적개공신화상의 제작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공신화상은 2본을 그려 충훈부(忠勳府)에 한 본을 봉안하고, 나머지 한 본은 공신가에 내려주었다는 충훈부 봉안설의 사실을 살펴보았다. 공신화상은 입각도형(立閣圖形)이라 하여 충훈부에 한 본을 보관하는 것이 공신교서(功臣敎書)에 기록되었으나 태종(太宗)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손소 적개공신화상>은 당시 한 본만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손소 적개공신화상>은 1795년(정조 19) 이명기(李命基, 1756~1802 이후)에 의해 이모본(移模本) 한 본이 그려졌다. 손소의 후손인 손국제(孫國濟, 1719~1795)가 당시 장수찰방(長水察訪)이던 이명기에게 부탁하여 그리게 된 것이다. 이명기와 주고받은 세 편의 간찰에 그 사연이 전하고 있다.

<손소 적개공신화상>은 15세기 공신복식의 주요 특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첩리(帖裏)와 답호(搭襖)의 묘사, 직금흉배(織金胸背)와 품계의 관계, 오사모(烏紗帽)와 양각(兩角)의 표현, 협금화(挾金靴)의 착용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936년 김은호(金殷鎬) 화백이 세조어진을 이모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속에 등장하는 1735년(영조 11) 작 이모본 세조어진에 주목하여 동시기 어진과 공신도상의 특징을 비교 검토하였다.

관련 기록이 없는 공신화상의 경우는 주로 초상의 양식과 현상의 특징을 살필 수 밖에 없지만, <손소 적개공신화상>은 15세기 복식의 시대성을 담고 있고, 조선초기 공신화상의 다양한 사료적 특색을 제고해 주는 등 공신화상의 연구 범위를 확충해주는 자료라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扈從宣武原從功臣都監儀軌』, 1999, 서울대학교 奎章閣

『影幀模寫都監儀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2765)

『長水驛誌』

『襄敏公遺事』

李裕元, 『林下筆記』

孫國濟, 『鶴窩集』

權赫山, 2007, 朝鮮中期 功臣畫像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김지영, 2004, 英祖代 眞殿政策과 《影幀模寫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 서울대학교 규장각.

윤진영, 2004, 藏書閣 所藏 『御眞圖寫事實』의 正祖~哲宗代 御眞圖寫, 藏書閣 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진영, 2008,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전반기 武官胸背 도상, 韓國服飾 26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이성미, 2002, 擁正十三年九月日 影幀模寫都監儀軌, 藏書閣所藏儀軌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은주·조효숙·하명은, 200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서울.

이은주, 2008,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 服飾 58권(제5호), 한국복식학회.

이은주, 2011,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10), 한국복식학회.

임현우, 20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반소(半燒)된 공신초상화의 주인공 검토, 고궁문화 3호, 국립고궁박물관.

장인석, 2007, 華山館 李命基 繪畫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정병모, 2010, 신라경순왕영정의 제작과 그 의의, 강좌 미술사 35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조선미, 1983, 韓國肖像畫 研究, 열화당

조선미, 2009, 한국의 초상화-形과 影의 예술, 돌베개,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황위주, 2013, 처마 끝 소나무에 갈무리한 세월, 경주 송재 손소 증가, 예문서원, 서울.

The Characteristic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ortrait of Son So, a Jeokgae Merit Vassal*

Yun, Chin yong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Abstract

The Portrait of Son So, a Jeokgae Merit Vassal(1476, Year 7 of the reign of King Sungjong of Joseon Dynasty) is a historical art piece exempl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Joseon dynasty vassal portraits. The art form of displaying the model's face from a slightly horizontal angle started from this piece, complete with the model's form and details shown clearly for a 15th century portrait. From these information, we can speculate that the same court painters who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Sejo Eojin*(世祖御眞, Portrait of King Sejo), three of whom being Choi Kyeong(崔涇), Ahn Guisaeng(安貴生), and Bae Ryeon(裴連), also had a part or influence in the making of this portrait as well.

The portrait of Son So was created 10 years after Son was appointed *Jeokgae Merit Vassal*(敵愾功臣). My personnel opinion regarding the delay is pointed to the fact that in the following years, series of kings' deaths, subsequent mourning periods, and regency of Queen JeongHee(貞熹王后, the king's grandmother) in stead of the young king took place. It was only in 1476, when the king personally took control of his powers, did any project on honoring the merit vassals resumed, along with *The Portrait of Son So*.

The vassal portraits were called *Ipgakdohyeong* and by rule a copy is stored in *Chunghun-bu*(an early Joseon ministerial branch in charge of works on vassals of merit). However a record exists of *King Taejong* inquiring of this procedure not being carried out at the time. Therefore we can speculate that *The Portrait of Son So, a Jeokgae Merit Vassal* is the only vassal portrait of Son remaining. A replica art of *The Portrait of Son So* was painted in 1795 by one Myeonggi Lee, a Jangsu Chalbong(長水察訪, a minor official in charge of messenger stables in Jangsu region) by request of

Kookje Son, Son So's descendant. Three letters between the two regarding the commissioning of *The Portrait*, remain to this day.

The Portrait of Son So, a Jeokgae Merit Vassal is the epitome of 15th century portraits of vassals of merit. Its importance is highlighted by depictions of *Cheomni*(帖裏, Man's coat) and *Da-po*(裕穫, Man's coat with half sleeves), *Ji-ggeum Hyungbae*(織金胸背, Insignia made from embroidered silk with supplementary gold wefts) and its correlation to *Pumgye*, expressions of *O-sa-mo*(烏紗帽, Official's coronet) and *Gak*(角, the 'prongs' on the o-sa-mo), and *Hyeopgeumhwa*(挾金靴, officials' boots), all of which are cross-referenced with the 1936 photograph of 1735 art replica of *Sejo Eojin* (Portrait of King Sejo). *The Portrait of Son So* captures the artistic character of the times. Various implications that early Joseon Dynasty merit vassals portraits possess can be explored, further expanding the range of related research.

Keywords : Son So, Portraits of vassals of merit, Jeokgae merit vassal, Traditional costume, Vassal of merit's costume

간행규정

2017.04.30. 부분개정

2019.11.25.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간행횟수) 『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말일에 총 2회 간행한다.(2017.04.30. 개정)

제3조(논문투고)

-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 ② 모든 필자는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2019.11.25. 개정)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인은 본박물관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2017.4.30. 개정)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7. 4. 30일 개정)
-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30]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5]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4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2) 평가기준

- ① 논문의 독창성
- ② 학문적 기여도

- ③ 논문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 ④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6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① $A \cdot A \cdot A / A \cdot A \cdot B$: 게재
- ② $A \cdot A \cdot C / A \cdot B \cdot B / A \cdot B \cdot C / B \cdot B \cdot B / B \cdot B \cdot C$: 수정 후 게재
- ③ $A \cdot A \cdot D / A \cdot B \cdot D / A \cdot C \cdot C / A \cdot C \cdot D / A \cdot D \cdot D /$
 $B \cdot B \cdot D / B \cdot C \cdot C / B \cdot C \cdot D / C \cdot C \cdot C / C \cdot C \cdot D$: 수정 후 재심사
- ④ $B \cdot D \cdot D / C \cdot D \cdot D / D \cdot D \cdot D$: 게재불가

제7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2019.04. 부분 개정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2. 투고 요령

-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접수 : ckafka@dankook.ac.kr).
- ②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③ 논문의 분량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A4용지 20면 이내로 작성한다. 그 밖의 자료 및 연구동향, 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연구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A4용지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내용의 특성을 반영해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19.04. 개정)
- ④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 ⑤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 등 작성은 『한국복식』 참고문헌 작성 규정을 참조한다.(2019.04. 개정)

4. 원고의 작성 및 채택

- ① 논문의 형식은 표지, 국문초록, 중심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key words의 순서로 하되 불필요한 항은 수정 및 생략할 수 있다. 표와 그림은 본문에 삽입하여 기술한다. (2019.04. 개정)
- ② 초록은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간결하게 기술하며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2019.04. 개정)
- ③ 문화재명, 인명, 지명 등은 한글과 영어 모두 공인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2019.04. 개정)

- ④ 모든 표와 그림,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반드시 언급 및 인용되어야 한다. (2019.04. 개정)
- ⑤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에 위치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예 : 표 1, 그림 1), 본문 중에 언급할 때에는 문장 뒤에 표기한다. (2019.04. 개정)
- ⑥ 모든 표의 제목은 상단에 배치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배치한다. 사진은 그림으로 포함한다. (2019.04. 개정)
- ⑦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5. 기타

-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복식』 해당호 3부와 해당 논문의 전자파일을 필자에게 제공한다.(2019.04. 개정)
- ②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편집위원회
전화 : (031) 8005-2393 전자우편 : ckafka@dankook.ac.kr

부 칙 [2019. 4. 3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작성 규정

2019.04. 개정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각주(脚註)’ 인용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1. 각주의 작성

- ① 동양 지역 간행본의 경우, 간행연도는 서기로 환산하고 특정연대는 괄호로 처리한다.
- ② 바로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 : 국문의 경우 : 홍길동, 앞의 논문(책), p. 203.
 영문의 경우 : R. Tylor, op. cit., p. 205.
- ③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저서의 경우 : 저자명, 간행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인용면수.
 논문의 경우 : 저자명, 게재연도,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인용면수.
- ④ 저자가 3인 이내인 경우는 전부 기록하되,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을 넣어 모두 명시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저자명 외’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외국인 저자의 이름은 성(family name), 이름(first name)의 약자로 표기한다.
- ⑤ 초록(학술대회 프로시딩 등)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술대회명, 도시명, 일자, 인용면수.
- ⑥ 학위논문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인용면수.
- ⑦ 단행본 -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명, 출판도시명, 권(2권 이상일 경우), 인용면수.
- ⑧ 연구보고서 - 기관명, 출판년도, 서명, 권(2권 이상일 경우), 인용면수.
- ⑨ 편저나 번역서 -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번역자), 출판사명, 출판도시명, 인용면수.
- ⑩ 저자가 단체나 조직인 경우 - 단체이름, 연도, 서명, 출판도시, 출판국가 : 출판사.
 (기관명이 약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는 기관명을 적은 후 약자를 괄호() 안에 기재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약자만 기재한다.)
- ⑪ 고서와 같이 출판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고서의 원문으로 작성] 연도.
- ⑫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2. 참고문헌 정리양식

- ①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다.
- ②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 ③ 동일 저자, 동일 연도 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제목의 첫 단어의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연도 뒤에 ㄱ, ㄴ, ㄷ… 또는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 ④ 인용되는 그림과 표의 출처도 참고문헌 표기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References에 포함시킨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시마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겹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겹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 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7 장 이의 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한국복식한국학연구원 원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원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제 목	국 문					
	영 문					
Keywords (5개 이내)	국 문					
	영 문					
제1저자 (주저자)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1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 031)8005-2389, Fax : 031)8021-7157, E-mail : ckalka@dankook.ac.kr

투고관련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 - mai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42號

찍은 날 2019年 12月 24日 印刷

펴낸 날 2019年 12月 31日 發行

發 行 단국대학교 石周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印 刷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 02-723-7741~2

FAX : 02-723-7743

